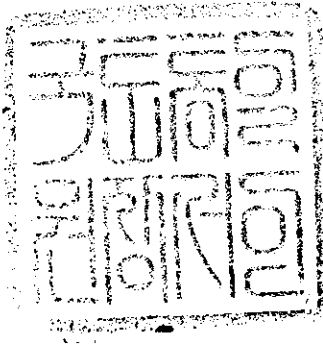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年 12月 日



研究責任者：西 江 大 學 校
 經 商 大 學 長
 李 承 潤

目 次

第 1 章 研究의 目的과 範圍	3
가. 研究의 目的	3
나. 研究의 範圍	6
第 2 章 「맑스」의 經濟理論과 蘇聯共產主義의 變遷過程	10
가. 「맑스」의 經濟理論과 共產主義체제의 形成	10
나. 蘇聯共產主義思想의 變遷過程	13
第 3 章 蘇聯의 經濟計劃과 生産管理體制	21
가. 年度別 經濟計劃 過程	21
나. 蘇聯經濟計劃의 作成方法	30
第 4 章 蘇聯經濟의 主要部門別 現況 및 問題點	35
가. 國民總生産 및 豫算規模	35
나. 資本蓄積率과 工業部門의 現況	43
다. 集團化 經營體制와 農業生産의 沈滯	51
라. 東·西貿易의 增大과 蘇聯의 對外貿易	58

第 5 章 蘇聯經濟의 問題點 및 展望	69
가. 蘇聯經濟의 問題點	69
나. 利潤制度和 새로운 價格體系의 定立	72
다. 價格體系의 展望	76

第1章 研究의 目的과 範圍

가. 研究의 目的

蘇聯은 共產主義經濟體制가 生産性的 低下를 갖어 온다는 矛盾性을 認定하고 지난 1965년부터 西歐資本主義의 成長刺戟劑인 利潤追求方式을 採用해 왔다. 蘇聯 共產黨中央委員會가 全面的으로 採択하기로 한 이같은 새로운 制度란 이른바 「利潤指向型」으로써 中共이 指摘하고 있다시피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대한 「修正」일 뿐 아니라 事實은 그의 否定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共產主義의 理念面에서의 瓦解 또는 破産의 前奏曲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共產世界에서의 先進國인 蘇聯이 이같은 大轉換의 勇氣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맑스」理論의 基本敎理가 歷史의 前進과 더불어 時代의 變化에 이미 그 適應性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共產主義實驗 50年間 「러시아」는 보잘것 없는 封建的 後進國으로 부터 오늘날 世界에서 軍事的으로 2位의 超強大國으로 發展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結果는 共產獨裁政治에 依한 國民生活의 1世代乃至 2世代의 完全犧牲의 터전위에서 이룩해 놓은 成果인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의 本質的 欠陷은 人間의 創意를 無視하고 私有財產의 排除等 獨自의 慾求의 抹殺에 있는 것이다.

이른 바 「社會主義的 生産方式」은 中央集權的인 一元的 計劃과 統制에 依해 質과 「코스트」를 無視하고 量的 確保에 政策의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無」에 다름없는 「均貧狀態」에 初期에 있어서는 應分の 成果를 거둘 수 있지만 一定한 水準에 이르면 勞動生産性的 低下, 「코스트」의 增大, 品質의 粗劣等으로 因하여 生産이 停滯되고 國際競爭力을 상실하면서 經濟成長을 鈍化시키게 되는 것이다.

蘇聯에서는 이제껏 工業部門이 출근 이러했고 農業에 있어서는 더욱 심했다. 「코르호즈」(協同農業) 및 소호즈(國營農業) 등에 얽매어 있는 蘇聯의 農民은 지난 50年동안 사보타즈로 一貫해 왔고 結局 耕地 3.5%정도의 私有 및 그生産品의 自由処分을 認定해 준 다음 肉類의 40%以上과 牛乳, 채소의 80%以上 등이 이 私有農場에서 生産되었다. 지난 5年前부터 利潤制度를 實施하여 增加된 一定한 利得의 「該農場員 所得制」를 實施한 結果 食糧生産은 過去 最下 8千萬屯 最高 1億2千萬屯으로 부터 68年度에는 一躍 1億8千萬屯 水準에 이르러 그들의 8次 5個年計劃(1970年度) 目標을 오히려 超過한 바 있다. 「리베르만」 「네르치노프」 「트라페즈니코프」教授等에 의해 62年以來 提昌된 自由主義經濟體制의 導入主張이 公公然히 나돌기 始作하고 그리하여 蘇聯共産黨中央委에서도 不得已 이같은 體制의 實施에 着手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966년에는 7百4個 企業체에, 67年度에는 5千5百, 68年度에는 6千여개로 그 體制를 擴大實施해 갔다.

이 같은 數의 企業體가 차지하는 生産的 比重은 全体 蘇聯工業 總生産에 對해 總 4 割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體制란 要件에 ① 生産方式의 企業體 獨自性 擴大에로의 전환 ② 企業의 獨立採算性 強化 ③ 價格制度의 合理化 및 ④ 勞動者에 對한 物質的 關心의 刺戟 等으로 要約되는 것이다.

70 年度 現在 蘇聯의 國民總生産은 美國의 그것에 對해 約 48 % 實際額으로써 約 4 千 8 百 億 弗 정도이다. 그러나 生活水準은 比較가 不될만치 低水準이며 GNP 의 實質成長率은 50 年代에는 4.5 % 정도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이 蘇聯의 苦悶과 「딜레마」는 國民消費性向의 壓力과 軍備擴張 必要性的 對立에 基因한다. 以上과 같이 蘇聯에서의 自由主義體制의 本格的인 導入은 바로 共產主義의 歷史的 變質을 뜻하는 것이지만 反面 그들의 解釋대로 한다면 이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새로운 歷史的 條件에 알맞는 補充, 發展이라는 것이며, 現存 그들의 社會體制가 穩固하고 있는한 그의 完全自由主義化란 아직도 그前道가 遙遠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것도 또한 事實이다.

그러나 蘇聯에 있어서 經濟管理體制의 本格的 改革은 장차에 있어 經濟發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近年의 國際情勢의 「해빙무드」와 더불어 美·蘇間의 交易의 增大는 장차 順調로운 南, 北關係와 非敵性國 交易의 增大를 目標로 하는 政府의 施策으로 볼때 새로운 次元에서 蘇聯經濟의 全盤

的 研究을 強要하고 있다.

따라서 本研究報告書는 国土統一院의 研究委囑에 依하여 「蘇聯經濟의 体制와 現況」을 中心으로 하여 1917年 10月 蘇聯에서의 社會主義 革命以後의 經濟發展 過程과 함께 1950年代 以後 蘇聯이 斷行한 制度의 改革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았다.

나. 研究範圍

共產主義統制經濟가 生産性의 低下를 가져 온다는 矛盾을 認定하고 65년부터 利潤追求方式을 採用해온 結果 기대했던 대로 生産性을 提高하는데, 短期的인 效果를 發揮하기도 하였으나 極도로 相反되는 政策의 混用은 漸次 그 跋行性을 드러내어 지난 1969年度의 蘇聯經濟는 65年以後 最惡의 1年을 記錄하였으며 그結果 「스타린」式 統制計劃經濟의 根本的인 회의를 蘇聯支配層에 안겨 주었다.

이 같은 現象은 經濟에 利潤制導入으로 經濟發展을 도모하는 것과는 달리 바로 그中核인 「價格」과 「賃金」을 계속 엄격한 統制下에 둠으로써 「市場要因」을 배제한데 연유하는 것이다.

蘇聯은 지난 1966年度에 約700個의 「示範企業」을 選定하여 利潤追求方式을 試驗하였는데 이들 示範企業체가 年間 約25%의 利潤을 거둔데 對해 여타의 企業은 平均 10%의 利潤만을 記錄하였다.

또한 現在 農業分野에 있어서도 「集團運營方式」보다 家族單位 當農이 約 6 倍의 生産性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試驗에 만족한 政策當局은 「蘇聯經濟가 變革期」를 맞았다고 自負, 相反된 政策을 계속 追求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過程에서 蘇聯이 과감히 價格體系의 變化를 試圖했드 라면 經濟政策은 成功里에 進行되었을지도 모른다. 即 國家의 嚴格한 計劃下에서 非正常的으로 이루어져 온 配給組織은 탄력성 있는 企業運營에 対応할 組織으로써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같은 사실은 곧 共產主義 經濟自體의 붕괴를 뜻하는 만큼, 移行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스스로의 試行錯誤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蘇聯의 利潤制度를 基礎로 한 「코시긴」經濟改革은 지난 1969 年末까지 全体工業의 生産單位 約 4 분의 3인 3 萬 6 千個의 工場을 새로운 形態의 制度로 바꾸었으며 이들 業體는 全体工業生産의 83.6%, 利潤總額의 91% 이상을 차지하여 多小의 効果를 과시하였다.

그럼에도不拘하고 1969 年度 蘇聯經濟의 各種成長率의 指數는 70 年으로 끝날 5 個經濟計劃期間中 目標未達이라는 最惡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 人當 實質所得增加率은 目標 5.5%에 未達하는 5%에 그치고 말았다.

이같은 事實이 바로 「브레즈네프」가 指摘한 計劃上的 過誤 即 「經濟計劃」과 實際의 「經濟循環」의 調和를 이루지 못한 데에 原因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經濟침체에서 연유하는 政治的 波紋은 이미 오래 前부터 予測되었으며 「브레즈네프」 스스로가 經濟政策 失敗를 自認한 것은 今後에 있을 「크렘린」内部에 權力鬭爭에 對備하는 礎石으로서 다음 단계에는 失敗의 責任問題가 必然的으로 제기되리라 예상된다.

結局 蘇聯經濟가 침체에서 탈출하려면 앞으로 몇가지 난관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이미 失敗한 經濟改革을 再改革하는데 따른 不可避한 經濟的 마찰이며

둘째로는 이제껏 蘇聯經濟發展에 除動要因을 形成한 國防費의 增加를 어떻게 삭감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더욱이 「브레즈네프」가 軍裝備現代化를 当面課題로 내세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軍事費는 今後에도 계속 커다란 經濟的 負擔이 될 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研究의 範圍는 第2章에서 初期蘇聯共產主義經濟体制의 基盤을 形成한 「맑스」의 經濟理論과 蘇聯의 經濟体制를 約述하였고, 第3章 蘇聯의 經濟計劃과 生産管理体制에서는 計劃過程의 歷史的 背景과 生産管理体制의 欠陷을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다.

第4章에서는 前述한 劃一的 生産管理体制에서 야기된 勞動生産의 低下 및 農業의 침체현상을 經濟現況과 比較하여 分析하였으며 이 같은 管理体制의 結陷을 示證하려는 理論上의 問題點과 特히 1960年代에 단행한 制度의 改革內容을 第5章에서 취급하였으며 蘇聯經

濟의 問題點 및 展望으로써 軍備擴張과 國民消費生活의 向上과의
對立과 기존권력 체제의 維持를 위한 修正主義思想의 擴大에 따른
制約要因을 檢討함으로써 蘇聯經濟의 今後의 展望을 予測하였다.

第2章 「맑스」의 經濟理論과 蘇聯共產主義의 變遷過程

가. 「맑스」의 經濟理論과 共產主義体制의 形成

「맑스」는 그의 著書 「資本論」에서 그의 學說을 體系化하였는데 主로 近代資本主義社會의 經濟運行法則을 分析하는데 目的을 두고 分析의 道具로서는 唯物論的 辯證法을 活用하였고 分析對象으로써는 資本主義社會의 生成과 發展 그리고 消滅過程을 檢討함으로써 資本主義의 必然的인 沒落과 社會主義經濟社會 形成이라는 結論을 내렸다.

「맑스」는 以上の 結論을 導出하기 爲하여 「勞動價值說」과 「剩餘價值說」을 主張하였는 바 勞動價值說은 英國古典經濟學의 「리카르도」가 發展시킨 投下勞動價值說」을 擴大發展시킨 것이다.

「投下勞動價值說」은 價値의 決定은 商品生産에 投下된 勞動의 量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하였다. 例를 들어 한마리의 닭을 잡는데 所要되는 時間이 열마리의 새를 잡는데 所要되는 勞動量과 같다면 한마리의 닭과 열마리의 새는 同一한 交換價値를 形成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勞動價值說의 矛盾은 모든 勞動의 異質的 現象을 同一하게 取扱했다는 點이며 經濟的 財貨의 價値가 勞動에 의해서만 決定되고 形成될수 없음은 勿論이다.

물째로 剩餘價值說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資本家 階級은 生

産手段을 所有함으로써 資本家들이 所有하고 있는 生産手段과 勞働者들이 提供하는 勞動力이 結合하여 商品이 生産되며 生産된 商品의 價值속에는 投下된 資本과 勞働의 價值에 比하여 더 많은 超過分の 剩餘價值가 生産되는 바 結果的으로 地代, 利潤, 利子等の 形態로 資本家에게 다시 帰屬됨으로써 資本家は 持統的인 富의 蓄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生産要素 가운데 勞働以外的 生産要素는 그 自体의 價值가 勞働生産物에 그대로 移轉될 뿐이나 勞動力만은 生産過程에서 自体의 價值보다 더 큰 剩餘價值를 生産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맑스」는 勞動力 自体의 價值는 勞働時間에 依하여 決定되고 그것도 勞働者들의 最小限의 生計費와 一致하는 範圍를 넘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勞働의 固定性を 主張하였다.

이처럼 「맑스」는 剩餘價值論을 통해서 利潤의 本質을 資本家에 의한 勞働者의 착취 관계로 說明하였기 때문에 利潤의 源泉인 私有財産制度의 廢止를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剩餘價值說의 根本的인 問題點은 우선 價值의 要素를 勞働一辺倒로 解釋하고 있으며 商品生産過程에서 야기 되는 資本, 原料, 土地, 企業能力等 여타의 生産要素等を 도외시하고 있는 事實이다.

세째로 「맑스」가 主張하고 있는 「資本主義 崩壞論」에 對한 概要를 보면 結局 資本家들은 보다 많은 剩餘價值를 얻기 爲해서 勞働者들의 勞働時間을 延長시킨다든가 勞働者들의 勞賃을 떨어 뜨

리게 되나 그것은 스스로의 限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大部分의 경우 技術의 革新을 통해서 勞動生産性を 높이는 方法을 扞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資本家들의 技術革新은 産業의 機械化를 促進시킴으로써 不變資本의 有機的 高度化를 造成하는 反面에 可變資本인 勞動의 減少現象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勞動의 減少現象은 勞動에 依하여 發生한다는 剩餘價值를 減少시키게 되어 結果적으로 資本家の 利潤率이 減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資本家は 利潤率의 下落을 막기 爲하여 資本蓄積에 依한 資本의 有機化를 더욱 高度化시키고 群少企業을 吸收 併합함으로써 独占에 依한 生産費를 擴大시킨다 하였다.

한편 勞動者들의 경우를 보면 生産量이 擴大된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技術革新, 即 機械化에 依한 것이므로 勞動者의 失業率은 機械化와 比例하여 增大되어 結局 貧困의 加速化를 招來한다고 보고 있다. 그럼으로 資本主義社會는 資本家の 大量商品生産과는 달리 勞動者들의 貧困으로 因한 商品需要가 減少함으로써 恐慌이 야기되며 이러한 現象이 長期化하면 過剩生産으로 因한 恐慌이 持續됨으로써 이같은 矛盾을 극복하기 爲하여 資本家は 国内的으로 独占結合에 依한 搾取體制를 強化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社会的으로 階級對立이 兩極化되고 對外的으로는 資本主義 國家間의 海外로의 資本輸出과 海外植民地開拓을 爲한 競爭이 심화되어 資本主義 國家間의 戰爭이 不可避하며 結局에는 資本主義社會가 崩壞되고 만

다고 하였다.

「맑스」理論의 根本的 矛盾은 資本主義經濟의 前進과 더불어 利潤率이 低下된다고 主張한 점이다.

即 經濟發展을 一定한 시점을 기준으로 靜態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投資가 增加됨에 따라서 資本家の 利潤이 一時的으로 低下되는 現象을 일으킬는지 모르나 長期的이고 動態的인 立場에서 본다면 資本家の 利潤은 上昇될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맑스」는 實際面에서 資本主義 發展初期의 經濟現象을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部分的으로 開發途上國家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은 勞動過剩現象이 일어 날는지 모르나 工業化의 進前으로 因한 勞動力の 過剩狀態로 부터 勞動力の 不足事態로 轉換되고 勞賃도 上昇一路에 있음은 오늘날 先進資本主義國家의 否認할수 없는 現實이라 할수 있다.

나. 蘇聯共產主義의 變遷過程

(1) 初期 「프레하노프」(Plekhanovism)主義 및 「레닌」主義

前述한 「맑스」의 經濟理論을 後進的인 「러시아」에 導入한 것은 「프레하노프」(Plekhanov)이다. 이러한 意義에서 「프레하노프」는 러시아에 있어서 「맑스」主義의 始祖이다.

그러나 러시아에 있어 「프레하노프」系 「맑스」主義者들은 「볼셰비키」와의 思想的인 差異가 있었다. 「프레하노프」系 「맑스」主

義者들은 「맑스」主義의 公式的인 解釋에 獨逸社會民主黨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그들은 첫째 社會的 條件이 成熟하여 「즈아리즘」이 必然的으로 崩壞할것 으로 보고 따라서 革命의 主体意識이 欠如되어 러시아 革命의 緊急性을 認識하지 못하였다.

둘째로 資本主義의 發展에 따르는 「브르조아」階級の 成長을 過大 評價하여 「프로레타리아」의 階級 및 「브르조아」階級이 聯合하여 브르조아革命이 遂行되면 暴力革命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平和的으로 社會主義의 實現을 達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프레아노프」系 「맑스」主義者는 볼셰비키와의 思想的 差異가 있었을뿐 아니라 革命的 傳統을 계승하여 「맑스」主義를 러시아의 革命的 實踐에 適用시킨 것이 「볼셰비키」이다.

따라서 「레닌」主義는 「러시아」共產主義의 第二段階로서 「맑스」主義를 「러시아」에 適用 實踐한 段階를 말한다. 「레닌」主義는 「레닌」이 「볼셰비키」의 領導者였다는 點에서 「볼셰비즘」(Bolshevism)이라고 불리우 는데 農民을 主要視 하였다는 點에서 19世紀 「나르도닉」運動의 傳統을 계승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르도닉 運動의 思想과 「맑스」主義를 單純히 混合한 混合體는 아니다.

1917年 10月 「볼셰비키」革命以前에 이미 러시아의 産業的 後進性때문에 共產主義者間에는 異見의 對立과 分裂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체로 3個의 分派로 集約 表現할 수 있다. 卽 「멘셰비키」(Mensheviks) 「볼셰비키」(Bolsheviks) 「트로츠키」(Tro-

tsky) 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意見의 分裂에 있어 「레닌」을 中心으로 하는 派가 勝利함으로써 「레닌」은 勞動階級同盟을 基盤으로 強力한 「소비에트」共和國의 建設을 위하여 「에리트」에 依한 中央集權的인 嚴格한 統制를 黨規의 基本으로 하고 世界革命을 追求하였다.

그러나 「레닌」이 러시아革命의 利益과 世界革命의 一致性을 強調하고 유럽革命으로써 러시아의 革命을 방어하려는 世界革命論을 條件의 前制로 하면서도 世界革命과 階級鬭爭이라는 이데올로기의 目標을 追求하는 限에 있어서는 蘇聯의 國家利益보다 이데올로기의 利益 그리고 國家보다 도 世界革命의 前衛隊로써 黨이 優先한다.

(2) 「스타린」의 一國家社會主義

스타린 (Starlin) 의 「一國家社會主義」 (Socialism in One Country) 의 채택은 國際的 革命運動의 퇴조를 배경으로 하여 「맑스」나 「레닌」의 革命的 國際主義를 蘇聯의 國家利益에 適應시키는 形態로 變質시켰다.

革命의 恒久性을 信奉하는 「레닌」과는 달리 「스타린」은 階級的인 社會主義 建設을 指向한 보다 現實的인 政治家였다.

이리하여 스탈린은 蘇聯의 社會主義國家로 서의 發展을 위해 國家的으로 政治權力을 強化하고 對外的으 로는 「콘민테른」을 完全히 崩潰시키하여 單一 中央指導制를 確立하여 一國家社會主義는

「레닌」時代의 世界革命의 期待와 相衡되었기 때문에 制度的
은폐조치 로써 官僚主義的 獨裁를 強化하고 戰後에는 大國主義를
貫徹시켜 衛星國家에 對한 統制政策을 強化하였다.

要컨데 이러한 「스탈린」의 目標은 「소비에트」체제의 確立과
社會主義經濟체제의 確立을 基盤으로 一國家社會主義를 建設하고
나아가서는 「社會主義의 建設을 企圖하였다.

結局 스탈린의 一國家社會主義는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퇴조의
產物인 만치 이것은 國際情勢에 관한 그의 判斷과 密接한 關係에
있기 됨은 當然한 일이다.

(3) 轉換期의 「후르시초프」主義

「후르시초프」(Khrushchev)는 스탈린主義的인 組織形態와 思
想을 파괴하고 國際狀況의 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 이데오로기의
Synthesis 를 提示하고 저 하였다.

첫째 國內的으로는 一元的인 黨의 계속적 支配를 結合코져 始
圖하였 으며 對外的으로로는 蘇聯權力의 膨脹을 世界的인 單一領
導 權力下에 서의 獨立的인 革命勢力과 結合시키코져 努力하였다.

20次 黨大會에서 國內的인 抵抗을 자아낸 데 反하여 22次 黨
大會는 國際的 反發과 危機를 造成했다.

「후르시초프」는 共產陳營 內部에 對해서 社會主義의 多樣性,

指導體制에 있어서는 集團指導制 그리고 對西方關係에 있어서는 競爭的 共存으로 일관하였다.

數次に 걸친 5 個年計劃에 의한 國內建設과 衛星國의 반발 其他 國內的인 諸要因의 相互作用에 依하여 스탈린時代의 社會主義帝國의 概念은 후르시초프時代에 完化되었다.

또한 第 20 次 共產黨大會以來 東歐衛星國에 對하여 「社會主義의 民族路線」(National Road To Socialism), 「社會主義의 多樣性」(Diversity Of Socialism)을 是認함으로서 外交와 軍事問題에 있어 蘇聯과의 行動統一을 기하는 外에 國內問題에 對한 民族 共產黨의 自律性을 許用하는 方向을 取했다.

그러하여 東歐의 政變以後 共產黨內部에 對해서는 「스탈린」時代의 統制代身에 圈內協調를 바탕으로 하여 共產諸國間의 不均衡的인 經濟發展을 지양하고 同時的인 社會主義 建設과 均等한 經濟發展을 圖謀하기 爲한 것이었는데 적어도 勢力膨脹이라는 蘇聯의 政治的 目標의 次元에서 본다면 資本主義와의 經濟的 競爭에서 그 優越性을 立証코저 하는 對自由黨 經濟攻勢의 일환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一國家社會主義의 단계로 移行시키고저 하는 그들에 있어 蘇聯自體의 資源의 不足을 補完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또한 共產圈 內部에 對해서는 同時的인 共產主義建設을 名目으로 하여 對自由黨에 對해서는 經濟競爭을 展開하여 美國을 능가하는 戰略目標의 達成을 爲해 「코메콘」(COMECON : 東歐經濟相互援助會

議)을 中心으로 하여 國際分業의 原理下에 共同市場의 建設을 爲한 努力을 보여 주고 있다.

(4) 改革의 대두와 「브레즈네프」-「코시긴」路線

東歐諸國의 自由化 氣風은 蘇聯의 國內的인 自由化에 對한 大衆의 要請과 無關할수 없다.

數年前부터 始作된 蘇聯의 經濟改革은 現時點에서의 政治의 自由化와 直接的으로 連結될수는 없으나 將來의 政治의 自由化를 約束하는 것이 기도 하다. 經濟的인 面에서 본다면 蘇聯에 있어 自由經濟論이 대두하게 된것은 결코 어제 오늘에 始作된 것은 아니며 그것은 이미 「말렌코프」時代에 始作되었는데 戰後 「스탈린」의 後繼者로서 「말렌코프」가 執權하였는데 1954年 1월에 그는 이미 蘇聯의 經濟가 크게 發展하였으므로 重工業 優先政策을 持統할 必要가 없어 졌다고 論한 바 있다.

그後 「후르시초프」는 漸次 消費財 工業을 重要時하게 되었다. 그는 重工業優先을 認定하면 서도 重工業을 消費財 生産의 擴張을 爲하여 利用을 增大시킨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消費財生産의 重要性에 對한 是認이 顯著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브레즈네프」-「코시긴」路線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論爭은 經濟計劃에 利潤導入에 關한 것이다. 卽 스탈린時代의 計劃經濟가 過度하게 中央集權的인 計劃經

적었음으로 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그것이 도리어 經濟의 能率을 低下시키는 結果가 되었다. 故로 스탈린式 計劃經濟를 經濟發展에 適應하도록 보다 더 合理化시킬 必要性을 認定하기에 이르렀고 스탈린式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를 어느 정도 地方分權化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받아들여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背景에서 1962年에 「리베르만」이 個個의 企業의 利潤率에 依하여 企業의 実績을 評價하고 또 이것을 基準으로 하여 物的 報償基金을 積立시켜서 經營의 能率을 刺戟시킨다는 提案을 하였다. 「리베르만」은 表面上 自由市場을 認定하고 있지 않으나 그의 思想은 相當히 資本主義와 共通的인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리베르만」의 思想에 대하여 이데오르기의으로 批判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코시긴」은 1965年 9月 비로서 現在 實施하고 있는 新經濟制度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現在의 蘇聯經濟는 「리베르만」의 理論과는 相當한 거리에 있으며 또 「리베르만」이 主張하듯 分權化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生産力이 發展하고 國民의 消費生活을 더 한層 尊重하지 않을수 없게 되면 相當한 變化를 갖어 올것 만은 확실하다.

1967年 6月 蘇聯 共產黨 中央委員會가 發展한 「社會主義 革命

50年」을 記念하는 題 제는 「社会主義的 生産의 成長은 蘇聯國民
의 物質的 福祉와 文化의 向上을 爲하여 튼튼한 基盤을 造成하였
다」고 論한 바 있다. 萬一에 市場經濟의 原理를 과감하게 導入
하여 價格機構가 富의 質과 量을 決定하게 된다면 黨이 國民經濟
에 대한 支配權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經濟的 自由化
政策이 限定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現在의 与件에서 必然的인
結果라 아니 할수 없다.

第3章 蘇聯의 經濟計劃과 生産管理体制

가. 年度別 經濟計劃 過程

A. 「빌만」教授는 1965年以來 蘇聯이 實施하고 있는 經濟改革을 評하여 蘇聯政權 成立以來의 세번째로 重要的 意義를 갖는 「革命的 變化」라고 評하고 있다.

第1의 革命的 變化는 1921年 「레-닌」의 「新經濟政策」(NEP)이며, 第2의 革命을 「스타린」의 「1次5個年計劃」(1929-32) 이라고 보고 第3의 革命을 1965年 9月の 蘇聯共産黨 中央委員會에서 決定된 「코시킨」의 「經濟改革」이라고 말하고 있다.

社會主義 計劃經濟는 共産主義經濟理論家들에 依하면 資本主義經濟의 無政府的 性格에 比하여 決定的인 優越性을 갖는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社會主義計劃經濟의 法則은 「均衡된 發展」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蘇聯經濟의 成長率의 大幅的 向上은 「蘇聯經濟의 暴風과 같은 發展」이라고 誇示되었고 資本主義經濟 가운데 가장 進歩된 美國에 追跡하고 追越하는 것을 目標로 함과 同時에 成長率은 蘇聯經濟에 있어서 異常的 發展을 表現하는 가장 主要한 目標로 간주, 蘇聯國內에서 뿐만 아니라 西歐社會에서도 「成長率病」을 낳게 했던 것이다.

元來 計劃經濟란 生産과 消費間의 均衡잡힌 發展을 이룩 하도록 計劃되어야 하나 蘇聯의 社會主義 計劃經濟는 처음 부터 均衡을 無視하고 計劃이라는 美名下의 命令經濟를 실시한 統制經濟였고 國

民의 生活水準을 低水準에 抑圧하며 強制的인 重工業化의 發展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었다.

또한 蘇聯에 있어서 經濟計劃은 期間에 따라 長, 短期로 区分할 수 있는데 長期計劃이란 보통 長期的인 經濟發展을 予測한 것이며 現實的으로 實現하기 爲한 것은 아니다. 지난 1961年 10月 第22次 党大會가 採択한 20個年 計劃이 좋은 例인데 이것은 1961年에서 1980年에 이르는 長期的인 展望計劃인 것이다.

다음 中期計劃으로써는 보통 5個年 經濟計劃이 作成되는데 이것은 年次計劃作成의 基礎가 된다. 現在까지 第7次 計劃을 除外한 9次에 이르는 經濟計劃이 모두 5個年計劃이다.

다음 短期計劃으로써는 第2次 世界大戰直前과 戰時中에 年次로 또는 月別計劃이 作成 實施되었으나 1947年 以後 부터는 年次計劃만이 實行計劃으로써 作成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5個年經濟計劃이 정기적으로 實施되기는 1929年 4月의 第16次 党協議會와 同年 5月의 第6次 「소비에트」大會에서 採択되어 法令으로 發表된 1次 5個年計劃 以後부터 이다.

그러므로 前述한 第1次 5個年計劃 以前을 過渡期의 蘇聯經濟라고 할수 있는데 이時期는 1917年 러시아革命에서 부터 1918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休戰條約과 1920年 赤·白軍間의 內戰終熄에 이르는 소위 戰時共產主義 時期와, 1921年 新經濟政策(NEP)을 고비로 하여 經濟的 破局이 收拾되기 始作하여 最初의 5個年計劃이 立案實施되기 까지의 計劃이다.

1917年과 1913年을 比較해 보면 工業總生産은 約4分の 1이 減少되었고 消費財 價格은 1914 - 16年間に 3倍가 등귀한데 比하여 1917年 中에 約6倍로 上昇하였던 것이다.

獨逸과 休戰條件이 締結된 1918年 以後에도 蘇聯經濟는 계속 惡化되어 1921年의 工業總生産은 1913年의 3分の 1以下로 低下되었고 1920年度의 穀物生産은 1913年의 半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 같은 事實은 赤軍과 白軍과의 內戰 資本主義世界에 依한 封鎖, 1920年度의 흉작 등에 基因하지만 同時に 蘇聯當局이 取했던 過度한 中央集權的 經濟管理, 勞動者들에 依한 工業管理參與, 混亂을 極한 無政府的 國有化 政策 등에 크게 起因하는 것이다.

(1) 蘇聯經濟의 過渡期

(1次 5個年 計劃, 1929-33)

蘇聯의 經濟는 1917年부터 1933年 까지의 「過渡期」와 1933年부터 1940年까지의 「社會主義 確立期」로 分類할 수 있으며 4次 5個年 計劃과 병행하여 1946年부터 1950年까지의 「戰後 復興期」와 50年代後半期부터 現在까지 「制度改革期」 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表 3 - 1)

1924年 「레닌」의 死亡後 「스타린」이 登場하여 이른바 「一國 家社會主義論」이 支配하게 됨에 따라서 1925年 12月에 第4次 黨大會를 고비로 하여 蘇聯經濟는 工業化 時期로 進入한다.

그後 1929年에 採択한 1次 5個年 計劃은 大規模工業의 生産目標

(表 3 - 1)

蘇聯의 年度別 經濟計劃 過程

過渡期	(1917-1932) 1次 5個年計劃 (1929-33)	○. 1921年 新經濟政策 (NEP) 선언 ○. 全面的 國有化의 緩和 戰時共產主義로 부터 後退 社會主義 體制의 정립
社會主義 確立期	2次 5個年計劃 (1933-37)	○. 蘇聯政權 樹立以後 最初의 包括的 經濟計劃 ○. 消費財 工業의 比重增大
	3次 5個年計劃 (1938-42)	○. 2次世界大戰 돌발로 中斷 ○. 戰時計劃에 의거 軍需産業에 集中擴大
戰後 復興 期	4次 5個年計劃 (1946-50)	○. 勝戰에 힘입어 目標達成 ○. 軍需産業의 縮少
	5次 5個年計劃 (1951-55)	○. 「스탈린」死後 「마렌코프」登場 ○. 消費財 工業의 力點 ○. 農業의 不振으로 因한 計劃目標 未達
	6次 5個年計劃 (1956-60)	○. 蘇聯共産黨 20次大會에서 「스탈린」批判 ○. 광범위한 制度改革을 試圖 ○. 1959年 7個年計劃으로 代替
制度 改革 期	7個年經濟計劃 (1959-65)	○. 鉄鋼 및 化學工業 發展에 주력 ○. 「에너지」源 確保 置重
	8次 5個年計劃 (1966-70)	○. 1人당 實質所得, 消費生活과 直結되는 指標의 增大 ○. 農業生産의 發展 ○. 計劃管理制度의 改革試圖

에 있어서는 最初의 2年間은 量的目標에서 計劃量을 돌파하였으나 3次年度와 4次年度에는 計劃目標의 半에도 미달하였고 最終年度인 1932年度에도 計劃目標의 절반에 미달 하였다.

그러나 前述한 1次計劃은 生産力의 發展이나 計劃經濟의 觀點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체제의 定立이라는 觀點에서 볼때 極히 重要하다.

(2) 社會主義 確立期

(가) 2次 5個年 計劃 (1933-37)

社會主義確立期の 2次 5個年 計劃은 1次 5個年 計劃에 比하여 2倍의 投資를 增大하였고 特히 工業内部에 있어서 生産財工業部門과 消費財工業部門의 構成比를 1次計劃의 6 : 1로 부터 4 : 1로 大幅 改善하여 消費財生産의 比重을 높였다. 또한 2次 5個年計劃은 蘇聯의 政權樹立後 最初로 經濟全般을 包含한 經濟計劃이 있으며 經濟적으로 볼때 이時期에 經濟各部門의 社會化가 顯著하게 進前되었으며 1次 5個年計劃과 2次 5個年計劃間의 実績比較는 다음과 같다. (表3 - 2)

(表3 - 2) 1. 2次 5個年 計劃의 実績比較

	1次 5個年計劃 (1932年度 実績)	2次 5個年計劃 最終年度 (1937年度実績 및 增加率)
工業總生産高 (億·루블)	433 (100%)	955 (220%)
生産財 (")	231 (")	552 (239%)
消費財 (")	202 (")	403 (200%)
電力 (10億KWH)	135 (100%)	364 (270%)
石 炭 (100万 t)	64.3 (")	127.9 (199%)
石 油 (100万 t)	22.1 (")	28.5 (129%)
銑 鉄 (100万 t)	6.2 (")	14.5 (234%)
鋼 鉄 (100万 t)	5.9 (")	17.7 (300%)
毛織物 (100万 M)	88.7 (")	108.3 (122%)

(나) 3次 5個年 計劃(1938-42)

第3次計劃은 2次世界大戰과 獨軍의 侵入으로 中斷 되었고 1940年까지의 実績만이 論議될 수 있다. 工業生産의 增加目標는 5年間 92%, 年平均 14%의 增加目標가 策定 되었고 其中 生産財와 消費財의 差異는 即 生産財 工業에 集中은 戰爭수행을 爲한 軍需産業의 強化라 할수 있다. 1938年에서 1940年에 이르는 期間中 工業總生産高의 年平均 增加率이 13%인데 比하여 軍需産業의 增加率은 平均 38%에 達하고 있다.

(3) 戰後復興과 4次 5個年計劃

(가) 4次 5個年 計劃(1946-50)

4次 5個年計劃은 戰勝의 여세에 힘입어 一般國民의 積極的 參與가 이루어진 結果 大体로 達成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4次計劃의 初期는 戰時經濟로 부터 平和體制로의 回復期였고 軍需産業이 急速히 縮少된 結果 1940年을 100으로 해서 全體로써의 工業生産高는 1945년에 92, 1947년에 77로 低下하였다.

그러나 2次大戰으로 因한 物質的 破壞 1,280億弗, 軍事費支出 3,750億弗 合計 4,750億弗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니와 이것은 3次에 걸친 5個年計劃의 總投資額을 6倍나 超過하는 것이다.

(나) 5次 5個年計劃(1951-55)

5次 5個年計劃의 主要指標는 47年度의 「마샬프랜」, 49年度의 「크메론」創設 등으로 顯在化한 條件에서 作成 되었음이 特徵이다.

1953年 「스탈린」死亡後 首相에 就任한 「마렌코프」는 消費財 生産에 力點을 둠으로써 그結果 蘇聯當局은 同年 10月에 消費財의 增産計劃을 發表 5個年計劃을 修正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結果的으로 이같은 計劃目標은 하나도 達成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5個年計劃의 原案에도 未達하였던 바 輕工業과 食品工業의 이같은 不振은 이部門의 原料를 供給하는 農業의 落後性에 基因한다. 따라서 1955年初에 「마렌코프」가 失脚하자 새로히 黨第1書記로 登場한 「후루시초프」가 各種의 農業振興에 注力한 것은 以上과 같은 事實에 근거한다. (表3-3)

(表3-3)

3, 4, 5, 6次 5個年計劃의 実績比較

	3次計劃 實 績 (1940年度)	4次計劃 實 績 (1950年度)	5次計劃 實 績 (1955年)	6次計劃 實 績 (1960年度)
工業總生産(10億루블)	137.5	239.6	443.2	1,552
生産財工業部門(")	83.9			
消費財工業部門(")	53.6			
石 炭(100萬t)	166.0	261.2	391.3	509.6
石 油(")	31.1	37.9	70.8	147.9
電 力(10億KWA)		91.2	170.2	2,932
鋼 鐵(100 t)	18.3	27.3	45.3	65.3
시멘트(萬 t)	5,700	10,194	22,784	

(다) 6次 5個年計劃 (1956-60)

1956年 2月の 蘇聯共産党 第20次大会에서 始作된 「스타린」의 批判은 蘇聯의 政治, 經濟, 社会 文化等 모든面에 걸치는 広凡한 運動으로 發展하였고 經濟面에서는 管理計劃의 機構 方法의 劃期的 改革이 많이 試圖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試圖들은 이렇다 할 成功없이 모두 失敗해 버렸고 지난 1959年 부터 새로운 7個年計劃으로 代替하지 않을 수 없는 窮地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같은 現象은 結局 6次 5個年計劃이 初期부터 各種 欠陥을 가지고 있었다. 할수 있다.

따라서 6次 5個年 計劃의 實施期間은 1956年부터 59年까지 3個年間に 不過하다.

(4) 制度改革期

(가) 7個年 經濟計劃 (1959-65)

6次 5個年 計劃이 많은 欠陥을 안은채 3年만에 中斷되고 1959年부터 65年까지의 7個年計劃으로 代替 되었다. 이와 같이 6次 5個年 計劃의 再編成이 不可避했던 主要原因으로서는 同計劃이 內包하고 있는 여러 가지 欠陥에 起因하고 있는데 무엇 보다도 資源의 利用이 不合理했다는 點과 未完成의 建設이 累積되었다는 點 등을 들수 있다.

따라서 7個年計劃의 主要指標로써는 東部地方의 自然資源의 開發, 鉄鋼産業의 急速한 發展, 化学工業의 發展, 에너지源의 確保를 들수 있다. 그러나 工業分野의 成長低調와 農業의 停滯는 同期間中 約

1,000 万吨이 넘는 穀物을 輸入하지 않을수 없었고 工業分野에 있어서도 重工業優先策이 緩和되고 消費財工業에 置重하였으나 計劃의 차질로 因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經濟計劃管理制度的 矛盾은 1964年 10月 「후르시초프」의 失脚을 가져 오게 하였다.

(나) 8次 5個年計劃(1966-70)

7個年 經濟計劃의 失敗와 「후루시초프」의 失脚은 經濟體制 内部의 矛盾을 제거하고 制度的 改革을 斷行하기에 이르렀는데 管理制度的 改革에 있어서는 生産力の 發展, 經濟構造의 複雜化, 經濟規模의 擴大라는 새로운 正세하에서 計劃當局이 個別企業의 細部 活動까지 掌握하고 計劃을 作成, 持導한다는 사실은 不可能 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單純한 生産의 增加가 아니라 效率的인 生産發展을 問題視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또한 經濟政策의 전환은 1968年度의 「체코」의 사태와 70年度의 「폴란드」暴動과 關係된다. 即 이같은 事態는 넓은 意味에서 經濟政策의 再檢討와 修整을 要求하게 되었다. 따라서 8次 5個年計劃의 主要目標은 工業成長率은 7個年 計劃과 거의 同一한데 比하여 國民所得은 7個年 計劃을 훨씬 上廻하고 農業增産에 力點을 두고 있음을 볼수 있다.

또한 人口·1人當 實質所得, 勞動者, 職員의 平均賃金 「콜호스」人員의 所得等 消費生活과 直結되는 指標에 重點을 두었고 8次計劃期間中の 主要施策인 計劃管理制度的 改革도 1966年부터 漸次 導入되기 始作 하였으나 그 改革의 進前은 東歐와 달리 順調롭지

못하였다. (表3-4)

(表3-4) 7 個年計劃 및 8 次 5 個年計劃 成果

	單 位	1958 年 (實 績)	1965年度 實 績	1965年 實績基準	8 次 5 個 年計劃(1970 年實績)
工業總生產高	(%)	100	184	100	150
生產財工業	"	100	184	100	151
消費財工業	"	100	196	100	149
石 炭	(100萬t)	493	578	100	624
石 油	"	113.2	243	100	353
電 力	10 億 KWH	235.4	507	100	740
綱 塊	(100萬t)	54.9	91	100	116
시 멘 트	(100萬t)	32.3	72.4	100	95

나. 蘇聯經濟計劃의 作成方法

(1) 資本主義體制와의 比較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서는 經濟決定機能이 原則적으로 個人이나 企業間에 分散되고 있고 資源配分은 「市場機能」을 通하여 自律적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資本主義社會의 經濟計劃은 原則적으로 巨視的 側面에 限定되며 政府가 財政·金融面의 政策을 通하여 通貨 信用을 間接적으로 規制 함으로써 國家의 計劃目標을 實現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經濟體制 特히 蘇聯에 있어서는 經濟計劃은 生産手段의 國有化와 더불어 비대한 階層的 管理機構에 基礎하고 있다. 그러므로 經濟計劃에 關한 責任을 지고 있는 中央計劃當局이 國家資源의 大部分에 關한 處分權을 가지고 있으며 資源配分の 窮極的인 決定權은 共產黨中央委員會에 있다. 왜냐하면 共產黨中央委員會에서 決定된 指針에 따라 閣僚會議, 各省, 「고스프린」을 通하여 詳細한 國民經濟計劃이 作成되고 있다. 이와같이 決定되는 經濟計劃은 生産, 分配, 消費, 賃金, 價格等 經濟의 모든部門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巨視的 側面뿐 아니라 企業이나 協同農場等 微觀的 側面に 이르기 까지 包括하고 있으며 이같은 協同農場이나 個個企業에 주어지는 計劃은 中央計劃委의 指令的 性格을 띠우고 있는 것으로서 法的 義務가 隨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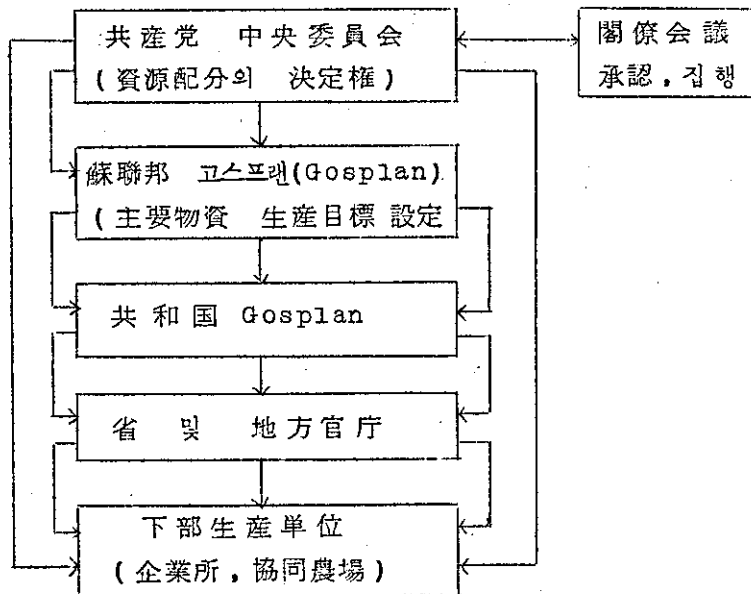
이와같이 蘇聯의 經濟計劃이 巨視部門으로 부터 微視部門에 이르기 까지 包括하고 있는 結果 蘇聯의 中央當局은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의 市場機構의 役割을 直接担当하게 된다. 따라서 經濟諸量의 相互關係를 計劃化하는 것은 極히 複雜한 作業이라 할수 있다.

蘇聯邦 「고스프린」(Gosplan)은 各共和國의 「고스프린」으로 부터 基礎生産物의 需要推定置를 提示받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基礎生産物의 數字와 物財балан스를 作成한다. 그러므로 黨과 政府가 決定한 政治的 經濟的 目標에 따라서 主要物資의 生産目標을 定하고 個個 物資의 需給關係를 定하는 것이다.

이 같은 計劃作成의 開始는 原来 中央当局의 責任이 있으나 1959 年以來 上·下에서 同時에 開始하는 것이 慣行으로 되어 있다. 計劃은 前年度 4 月에 作成이 開始되어 12 月에 完結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에 關係하는 機關으로써는 聯邦「고스프렌」, 共和國 「고스프렌」, 省 및 地方庁, 企業을 들 수 있다.

下部生産單位인 企業은 前年度実績, 作成年度の 計劃, 現在의 生産 能力等を 고려하여 次年度の 生産計劃을 作成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次年度에 達成할 生産目標과 함께 그達成에 必要한 上部에 對한 支援요구가 表示되고 이 같은 計劃은 一定한 節次를 밟은 뒤 省과 地方官庁에 提出되고 企業과 官庁間의 折衷을 거쳐 共和國 「고스프렌」에 提出된다. (表 3 - 5)

(表 3 - 5) 蘇聯聯의 經濟計劃 作成過程



따라서 共和國 「고스프렌」은 聯邦「고스프렌」에서 下達된 統制 數字와 省으로 부터 提出된 資料를 調整하여 8月頃에 共和國레벨 의 一般計劃을 完成한 後 聯邦「고스프렌」에 提出하게 된다. 이 같이 提出된 各共和國經濟計劃을 總括하여 最後로 聯邦「고스프렌」이 蘇聯全體의 計劃案을 作成하고 閣僚會議의 承認을 받아 確定되 는 때 時期는 대체로 10月頃이다.

(2) 經濟計劃 및 管理制度의 改革

蘇聯에 있어서의 經濟計劃은 生産手段의 國有化와 더불어 비 대한 階層的 管理機構위에 基礎를 두고 있는데, 이같은 中央集權的 인 經濟計劃方式은 經濟發展이 이루어 지기 以前에 初期에 있어서 는 資源動員과 配分에 있어서 多小의 利點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으나 全體經濟의 規模의 擴大와 더불어 構造的으로 高度化됨에 따라서 많은 難點을 內包하게 된다.

이같은 內部的 矛盾을 解決하기 爲하여 內的인 面에서의 制度의 改革을 끊임없이 試圖하여 왔는데 特히 「스탈린」 死後 國民經濟 의 運營 管理에 關한 여러가지 欠陷으로 부터 脫出하기 爲한 試圖가 行하여 졌다.

「스탈린」式 計劃, 管理의 欠陷은 資源配分에 있어 過度한 中央 集權的 統制, 官僚主義的 非能率, 決定機能의 分散欠如 等으로 集約 된다. 따라서 1954年 1月 蘇聯共產黨中央委員會가 이같은 欠陷 을 正式으로 지적한 이래 蘇聯當局은 同年 10月에 이르기 까지 中央에서 부터 地方에 이르기까지의 行政組織을 整備하고 上述한

成果에 의거하여 行政管理機構의 肥大化 經濟指導方法의 官僚性等을 指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指摘에 따라 省의 權限擴大, 各共和國省의 權限擴大등 措置를 講究함과 同時에 1955年度에는 基本投資, 企業再建, 物資의 販賣, 賃金 및 融資의 部面에 關한 企業의 權限을 大幅 擴張 함으로써 過度한 中央集權化를 緩和하고 企業利潤의 一部를 自體의 基金化하도록 許容 함으로써 企業의 創意的 活動을 조장하고 勞動의 生産意慾增大를 試圖하게 되었다.

또한 「고스프렌」 자체도 1955年度에는 機構의 改革이 있었는데 長期計劃과 短期計劃作成이 分離되고 「고스프렌」은 長期計劃만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스프렌」은 長期計劃의 作成과 主要 經濟問題研究에만 專念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現象은 當時 蘇聯經濟에 나타난 部分的 不均衡이 短期的이 아니라 長期的인 側面에서 解決되어야만 한다는 새로운 認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長. 短期經濟計劃作成을 別個의 獨立된 機關에 分離시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여 그後 不過 2年만에 兩機能은 再次 「고스프렌」에 統 合되고 말았다.

第4章 蘇聯經濟의 主要部門別 現況 및 問題點

蘇聯은 1970年度의 8次 5個年計劃에 이어 現在 9次 5個年計劃 (1971 - 75) 을 推進中에 있다. 9次 5個年計劃의 主要目標로서는 生産의 高率成長과 效率의 向上 科學技術의 進歩와 勞動生産性의 向上인데 이같은 目標을 實現하기 爲하여 1971年 3月 第24次 共產黨大會에서는 消費財의 增産과 技術革新에 依한 産業間 構造의 高度化, 勞動生産性의 向上, 管理計劃制度의 效率的 改革을 黨의 指 令으로 삼았다.

가. 國民總生産 및 予算規模

國民所得 或은 總國民所得 (Gross National Product) 라 함은 흔히 一國의 國民經濟가 特定期間에 生産한 財貨와 用役의 總額을 貨幣單位로 算定한 總額이며 所得計定上 推計過程에서 中間財의 重複計算을 除外 함으로써 순수한 附加價值 (NET VALUE ADDED) 의 總額을 말한다.¹⁾

그러나 經濟體制가 相異한 自由主義經濟體制와 社會主義經濟體制에 있어서는 國民所得의 概念이 同一하게 適用되지 못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는데 이같은 事實은 두말할 것도 없이 國民所得의 算

註1) Kuznet, Simon: National Income: A Summary of Findings,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46

定概念이 根本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即 蘇聯과 같은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國民總生産의 概念이 社會總生産의 概念으로 使用되고 있는데 自由主義社會의 GNP 概念과 根本적으로 相異한 점은 社會總生産은 國民經濟의 모든 生産單位의 總生産量을 合計한 額數이며 따라서 計定上에 있어서 모든 生産單位는 外部로 부터 얻은 投入要素의 價値를 控除하고 있지 않는 點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額數를 算定하는데 있어서 派生되는 重複計算의 정도는 算定方法에 따라 相異하다고 볼수 있다.

또한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는 一國의 國民經濟가 發展을 거듭할수록 一次産業의 比重이 적어지고 相對적으로 二次産業과 三次産業의 比重이 커지고 있는데 比하여 共產主義諸國의 「社會總生産 (Gross Social Product) 概念에 있어서는 3次産業部門 (Service Sector) 을 除外하고 있는 것이 特徵인데 이러한 現象은 주로 「맑스」理論에 연유하고 있다. 「맑스」에 依하면 生産 或은 價値는 「生産的 勞動」(Productive labor)에 依해서 發生한다는 事實이며 生産的 勞動이라 함은 人間의 慾求를 만족시키기 爲하여 生産手段을 統制 或은 變形함으로써 物資生産에 投入되는 勞動이라 定義되고 있다. 따라서 物資産業部門이 除外되는 것이 原則이다.²⁾

또한 自由主義諸國에 있어서는 國民所得은 目的에 있어서 여러 形態로 變한다. 「總生産概念」이라든가 또는 「純生産」 「經常價値」

註 2) R.W.Cambell: Accounting in Soviet Planning and Management, Havard University press, 1963

或은 「要素費用單位」等 여러가지 形態로 評價되는데 反하여 蘇聯에 있어서는 훨씬 硬直的 性格을 띠우고 있다.

蘇聯에 있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物質生産만을 包含한다는 原則下에서 生産의 「純額」 即 감가상각을 除外하고 計算하고 있으며 國內總生産 即 最終受領인이 누구이든 間에 國內에서 生産된 總額을 計上하고 있으며 끝으로 實際로 去來된 價格에 間接稅는 包含되나 補助金은 고려하지 않고 計上하는 점이다.

이와 같이 最終生産品을 實際로 去來하는 價格으로 國民所得을 計上한다는 事實은 몇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데 이들 問題點은 主로 去來稅의 賦課가 平衡을 잃고 있는데에서 야기되며 첫째 生産的인 側面에서 볼때 農業部門은 工業部門에 比하여 過少評價되고 있다. 왜냐하면 工業部門에 比하여 農業部門은 보통 去來稅가 부과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農産物價格은 生産原價以下로 策定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GNP 形成概念上的 問題點을 前提로 하고 1971年度 蘇聯의 GNP를 본다면 約 4,500 億弗로 推定되며 (表4-1) 蘇聯을 除外한 東歐諸國의 GNP 合計는 約 1,600 億弗로 推定되고 있다. 한편 東歐諸國에 있어서 1人當 GNP는 「체코」와 東獨이 各各 2,000 弗台를 上廻하고 蘇聯이 이를 뒤따르고 있으며 其他諸國은 1,200 弗부터 1,500 弗 사이에 있다.

이들이 最近 數年間 達成한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5%로부터 8% (루마니아) 사이이다. (表4-2) 이와 같은 蘇聯을 中心으로 한

(表 4 - 1) 蘇聯 및 東歐諸國의 GNP 및 1人當 GNP 現況

國 別	面 積 ¹⁾ (km ²)	人口(1971) (100萬名)	GNP(1967) ²⁾ 10億 弗	GNP(1971) ³⁾ 10億 弗	1人當GNP (1971年)
蘇 聯	22,400,000	245.09	3,950	4,524.9	1,853
알바니아	28,748	2.23	-	-	-
불가리아	110,912	8.54	82	111.2	1,302
체코	127,870	14.50	263	335.4	2,213
東 獨	108,300	15.95	291	354	2,219
헝가리	93,030	10.35	126	159	1,539
폴란드	312,677	32.75	339	433.3	1,323
루마니아	237,500	20.47	188	259.8	1,269
유고	255,804	20.55	-	133.4	649

資料: 1) 面積; 1971年人口: United Natio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2) 1967年 弗貨表示 GNP, 美國 上, 下合同經濟委員會 報告, 但, 蘇聯 1969年分

3) 1971年分은 世界經濟日書 72年판에서 作成

(Yugoslavia 의 GNP 成長率은 United Nantion, Statistical Year Book

Net Material Products 의 60年 - 69年間 年率適用)

(表 4 - 2) 蘇聯 및 東欧諸國의 最近數年間 經濟成長率

國 別	年 度	經濟成長率 (%)
蘇 聯	1968	8.2
	1969	4.8
	1970	8.7
	1971	6.0
	(平均)	(6.9)
불 가 리 아	1968	6.1
	1969	10.1
	1970	7.0
	1971	8.2
	(平均)	(7.8)
체 코	1968	7.3
	1969	7.5
	1970	5.4
	1971	5.1
	(平均)	(6.4)

国 別	年 度	經濟成長率 (%)
東 独	1968	5.3
	1969	5.3
	1970	5.3
	1971	4.5
	(平均)	(5.1)
항 가 리	1968	5.2
	1969	7.9
	1970	4.9
	1971	7.8
	(平均)	(6.4)
폴 렌 드	1968	8.8
	1969	2.9
	1970	5.4
	1971	7.5
	(平均)	(6.15)
루 마 니 아	1968	6.8
	1969	7.1
	1970	7.5
	1971	12.5
	(平均)	(8.5)

資料：COMECON 統計年鑑，1971年

共産圏諸国の 經濟成長은 先進資本主義諸国인 西独 (4.7%) 이나 美国 (3.3%) 보다는 높은 水準이나 日本 (12.7%) 에 比하여서는 顯著히 낮은 것이며 伊太利 (6.0%) 仏蘭西 (5.7%) 「이스라엘」 (7.9%) 등과 비슷한 成長実績임을 볼수 있다. 蘇聯에 있어서 歲出 予算制度를 본다면 그들의 經濟計劃過程에서 支給되는 財貨生産 資金支給 ② 社会 文化活動費 ③ 政府行政費 ④ 國防費 ⑤ 其他의 項目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支出을 爲한 歲入은 ① 社会主义經理 收益金 (企業利潤의 控除) ② 去來收益金 ③ 企業에 依한 其他支払 ④ 個人所得稅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蘇聯 共産主義經濟体制下에서는 「私有財産」과 「價格機能」이 認定 되지 않고 資源의 生産, 分配, 消費의 過程이 「國家計劃委員會」에서 劃一的으로 統制되고 있기 때문에 國家財政은 國民經濟活動에 決定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69年度 蘇聯의 歲入, 歲出의 構造를 보면 (表4-3)

(表4-3) 蘇聯의 歲出入 構造 (年度別 變遷過程) (%)

收 入	1933	1950	1960	1969	支 出	1933	1950	1960	1969
社会主义經理 收益金 (利潤控除)	7	10	24	36	人民經濟費	60	38	44	43
去來稅	59	56	41	32	社会文化 活動費	15	28	34	38
企業에 依한 其他支払	16	19	26	23	行政管理費	4	3	2	2
個人所得稅	9	6	2	2	國 防 費	-	20	13	13
政府借入	-	-	-	-	其 他	21	11	7	5
總 計	100	100	100	100	總 計	100	100	100	100

社会主義經理收益金이 收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36%이고 国营企業 또는 工場이 商品을 生産하여 商業機關에 引渡할때 國家가 徵收하는 去來稅가 32%, 企業에 依한 其他의 支拂이 約 23% 個人所得稅는 不過 2%에 不過하다.

個人所得稅는 住民稅라고도 하는데 蘇聯에 있어서 매우 낮고 個人財產의 蓄積을 막기 爲하여 보통 累進稅率을 適用하고 있으며 蘇聯의 경우 이같은 累進稅率은 最高 69%에 이르고 있다.

蘇聯의 歲出構造는 財貨의 生産을 爲한 資金支給 即 人民經濟費가 約 40% 教育, 保健, 住宅等 社会文化施策費가 38% 政府行政管理費 2%, 國防費 13% 등으로 区分된다. 國防費가 차지하는 比重은 總支出에 있어서 13%에 達하고 있는데 이같은 現象은 美國의 9.2% 共產圈諸國인 헝가리 3%, 체코 7% 불가리아 4%에 比하여 顯著히 높은 水準이라 아니할수 없다. (表4-4)

(表4-4) 蘇聯 및 主要共產圈諸國의 國防費 負擔率 (1968年)

國 別	國防費支出額 (10,000 弗)	國防費/GNP	1人當國防費 負擔率 (\$)
蘇 聯	39,780	9.3	169
불 가 리 아	228	2.9	27
체 코	1,538	5.7	105
東 獨	1,715	5.7	100
헝 가 리	370	2.9	36
폴 랜 드	1,830	4.8	57
루 마 니 아	551	3.0	28
유 고	543	5.7	24

資料 : 「Military Balance」, 1969-70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69

나. 資本蓄積率과 工業部門의 現況

(1) GDP의 産業別 構成

1924年 「레-닌」의 死亡後 「스타린」이 登場하여 이른바 「一國家社會主義」論이 支配됨에 따라 1925年 12月에 14次 黨大會를 고비로 하여 蘇聯經濟는 工業化 時期로 접어 들었다. 따라서 1928-33年度의 1次 5個年計劃期間 동안의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間의 投資配分은 約 6:1이 없고 2次 5個年 計劃期間 (1933-37)에 있어서도 重工業對 輕工業의 投資比率은 約 4:1이 없다.

이와 같이 資源配分에 있어서 重工業의 편중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맑스」理論에 基因하는 것인데 「맑스」에 依하면 經濟成長을 促進시키기 爲한 最善의 方法은 資源配分에 있어서 生産財 生産에 보다 많은 部分을 割當하고 消費財 部門生産에 割當分을 減少시켜야 窮極的으로 國民經濟에 成長率을 極大化 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蘇聯에 있어서도 이같은 原理는 꾸준히 採択되어 이제껏 8次에 걸친 5個年計劃 수행에 持續的인 重工業優先策에 편중해 왔다. 1970年度 Gross Domestic Product의 産業別 構成比를 본다면 農業 22% 工業 51% 이었고 60年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農業이 20% 工業이 52%였다. (表 4-5)

産業構造別 變動狀況을 보면 '60年代를 통해서 「불가리아」, 東獨, 「폴란드」 「루마니아」等 4個國에 있어서는 工業의 比重이 著실히 增加된 反面에 「체코」 「헝가리」等은 工業의 比重이 減少되

었는데 이는 「서비스」 其他部門의 比重增加로써 相殺 되었다.
 蘇聯의 경우는 工業의 比重面에서 別다른 變動을 찾아 볼수 없다.

(表 4 - 5) 蘇聯에 있어서 GDP의 産業別 構成

国 別	農 業		工 業		其 他	
	1960	1970	1960	1970	1960	1970
蘇 聯	20	22	52	51	26	26
불가리아	32	23	46	49	22	29
체코	16	11	63	61	22	27
東 獨	17	12	58	63	28	29
헝가리	23	18	59	43	7	39
폴란드	26	17	47	52	27	32
루마니아	33	24	44	57	24	19

註：(1) 其他는 建設業；都小売業，運輸，通信을 包含

(2) 農業은 수렵，林業，漁業이 包含됨

一般的으로 共產國家들의 共通的인 現象은 農業의 比重이 위축되
 었다는 點을 볼수 있다.

(2) 主要部門別 生産実績

앞서 蘇聯에 있어서 GDP上的 産業別構成比를 보았거니와 蘇聯은 現在 1971년부터 75年度를 目標로 하여 9次 5個年計劃 劃을 實施하고 있는데 同計劃의 基本目標는 첫째 1971年 - 75年間에 生産財生産의 45% 増加에 對하여 消費財生産 46%의 増加를 計劃하고 있다.

둘째 勞動生産性의 向上이 크게 強調되고 있는데 이것은 蘇聯의 勞動力供給이 限界에 이르렀고 非生産部門의 勞動力의 需要가 增加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蘇聯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生産性의 向上을 爲하여 이미 施行되고 있는 經濟改革이 成功하지 못하면 國民의 消費生活을 向上시키므로써 勞動意慾을 높이고 物質的 刺戟을 動員하기 爲한 方便으로서도 國民生活과 直結되는 經濟部門의 重要度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消費財産業의 資源配分增大는 必然的 現象이라 아니 할수 없다.

70年度의 電力生産量은 7千4百億KWH에 達하고 있으며 鋼鉄生産은 粗鋼基準으로 1億屯을 증가하고 있다. 특히 鋼鉄生産은 重工業優先策과 軍需産業에 直結되기 때문에 今後에도 계속 急速히 發展할 것으로 推測된다. (表4-6)

自動車産業은 아직도 100万台에 미달하여 發展된 鋼鉄産業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같은 実績은 美國, 日本, 西獨, 伊太利等 西方諸國에 比하여 월등히 낮은 數字이다.

(表4-6) 蘇聯의 主要工業部門 生産実績 (70年度)

	单 位	生 産 高
電 力	億 KWH	7,400
石 炭	100 万 屯	624
石 油	"	353
鋼 鉄	"	116
세 멘 트	"	95
化 学 肥 料	"	55
織 物	10 億 M	8.9
化 学 織 維	万 屯	62.3
타 이 어	100 万 屯	34.6
自 動 車	万 台	91

1961年 부터 65년까지의 蘇聯의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의 增加指數를 보면 39% : 24%로 消費財工業의 增加率이 낮은 水準에 있고 生産財工業에 있어서도 增加率이 가장 높은 部門이 電力의 72% 石油, 天然GAS, 金屬 및 非金屬部門 化学工業部門이다.

(表4-7)

(表4-7)

蘇聯的工業生產指數

(%)

	1960	1961	1962	1963	1965	1966
工業原料製	100	106.5	113.8	121.4	130.1	139.5
電 力	100	112.1	126.5	140.7	156.4	172.5
石 炭	100	100	102.0	105.0	109.2	113.7
石油天然GAS	100	112.3	127.4	141.6	155.1	169.0
鐵 金 屬	100	108.1	116.8	124.1	134.0	146.1
非鐵金屬	100	114.9	120.9	130.9	138.4	150.0
木材製品	100	101.3	105.3	111.2	116.4	119.2
紙 類	100	105.9	113.4	119.7	128.6	145.5
建設資材	100	110.5	120.4	127.2	135.7	146.2
化 學	100	107.9	117.6	129.4	145.4	162.2
非耐久消費材	100	105.3	110.3	111.6	116.7	124.7
輕 工 業	100	103.2	107.5	109.8	114.4	116.9
食品工業	100	108.1	114.1	114.2	119.8	135.5

資料：New Direction of Soviet Economy

[Studies Prepared for the Subcommittee on Foreign
Economic policy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3) 資本蓄積에 對한 工業成長의 둔화

蘇聯에 있어서 投資政策은 그들社會主義計劃經濟의 目標을 達成하기 爲한 計劃的 資源配分에 依하여 이루어 진다.

2次世界大戰 以後 60年代까지의 資本의 蓄積은 西歐諸國에 比하여 월등이 높고 美國에 比하여 總固定資本形成이 1940年부터 1962年에 이르는 사이에 約 3倍에 達하고 있다.

특히 鈹物 燃料産業을 爲始하여 鉄鈹工業·冶金工業의 資本蓄積度가 높은것을 볼수 있으나(表4-8) 反面에 單位當 生産性を 低水準임을 볼수 있다.

우선 工業產出의 年間平均 增加率은 1951-55年間に 있어서 約 11%로 부터 1956年-61年間에는 9%로 다시 62年-65年間に 7%로 低下한 事實을 들수 있으며 反面에 雇傭에 對한 資本蓄積은 比較的 착실한 增加를 이루어 왔는데 勞動力의 年間 增加率은 2.4%에 比하여 生産的 資産의 年間 純增加率은 約 12%에 達하고 있다.

總要素生産性的 成長率은 1950年代를 通하여 上昇傾向을 보이다가 1956-58年頃に 「피크」에 達했고 1959-61년에는 서서히 下落하기 始作했고 62-65年頃에는 急激히 下落 하였다.

이와같이 資本蓄積에 對한 產出高의 低下는 2가지 事實에 基因하는데 첫째 50年代의 東·西冷戰의 激化現象과 특히 韓國戰爭을 前·後한 軍需産業과 機械製造業에 對한 支援体制의 加速化는 産業間의 不均衡으로 因한 生産性的 둔化現象을 招來 하였고 둘째로는

(表4-8) 資本生産低下에 關한 一部指數(1940 = 100)

	1940	1950	1955	1962
(I) 固定資本蓄積指數				
鈹物燃料産業	100	148	174	319
鉄冶金	100	148	251	539
運輸・通信	100	124	206	286
(II) 三産業産出高指數				
鈹物燃料	100	131	202	328
鉄冶金	100	149	247	416
運輸, 通信	100	146	239	434
(III) 三個産業에 對한 資本對産出高比率				
鈹物燃料	100	113	86	97
鉄冶金	100	100	102	130
運輸・通信	100	85	86	66
(IV) 資本蓄積單位當				
GNP 指數				
鈹物燃料	100	84	99	81
鉄冶金	100	84	69	48
運輸・通信	100	100	83	90

資料: New Direction in the Soviet Economy, [Studies Prepared for the Subcommittee on Foreign Economic Policy]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66

西方側에 對한 封鎖體制下에서 새로운 技術革新에 차질을 가져 온 事實을 들수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必然的으로 全體經濟發展에 둔화추세를 야기 시키고 말았다.

194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1962年度까지의 美·蘇의 G N P 增加率은 蘇聯이 多少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同期間의 固定資本蓄積率은 美國에 比하여 約3倍에 達하고 있으며 (表4-9).

따라서 固定資本蓄積 單位當 G N P 成長寄与率은 美國에 比하여 절반에도 未達한다. 이러한 現象은 바꾸어 말하면 蘇聯의 資本單位當 生産性이 美國에 比하여 월등히 낮다는 事實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表4-9) 要素生産力 變化에 關한 美蘇間比較 (1940=100)

	蘇 聯			美 國		
	1940	1955	1962	1940	1955	1962
(I) 產出高에 對한 主要 投入指數 G.N.P	100	172	257	100	193	233
固 定 資 本 蓄 積	100	239	419	100	140	169
基 本 金 屬 消 費 量	100	230	396	100	212	215
貨 物 輸 送	100	239	434	100	206	225
固 定 資 本 對 勞 働 比 率	100	215	332	100	105	118
(II) 主要投入 單位當 G N P						
1 人 當 G N P	100	154	204	100	145	164
固 定 資 本 蓄 積 單 位 當 G N P	100	72	61	100	138	137

다. 集團化 經營体制과 農業生産의 沈滯

60年代 後半부터 西方國家들의 關心을 끌어 온 蘇聯經濟의 體質改善이 지난 72年度에는 農·工不振에 刺戟 받아 具體化되어 가고 있다.

經營에 있어서 利潤制度의 導入을 爲始하여 生産成果에 따른 價與金制度의 實施, 農土의 個人所有認定等 資本主義制度가 部分的으로 適用되는 것으로 알려져 지고 있다. 지난 1972年度의 蘇聯經濟는 農業生産의 不振과 이로 인한 工業生産의 停滯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으며 今年度에도 영향이 크게 作用되리라 본다. 이같은 蘇聯의 經濟危機는 蘇聯뿐 아니라 오늘날 全世界로 파급되어 가고 있다. 昨年度(72年)의 農業에 있어서 大凶作을 겪은 蘇聯은 美國, 「캐나다」, 濠州, 仏蘭西等 西方諸國으로 부터 約 18億弗에 相當하는 3,000萬屯의 小麥, 옥수수等을 購入함으로써 世界的 穀物價格의 急增은 食肉의 國際價格을 72年中 約 20%나 昂騰케 하는 連鎖波動을 일으켰고 大量의 穀物輸送으로 인한 海上運賃까지 오르게 하는 現象을 빚었다.

蘇聯의 農業生産의 成長率은 70年度의 10.3%라는 高度成長에서 71年度의 「제로」成長, 72年度에는 -4.6%를 記錄 凶作의 정도를 짐작케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農業部門의 不振은 工業分野에도 영향을 미쳤고 蘇聯中央統計局 發表를 보면 72年度의 工業總生産伸張率은 70年度의 7.8%에 비해 6.5%로 鈍化되었으며 특히 農産物作況과 直接關聯이 있는 輕, 食品工業은 平均工業成長率에도

未達하고 있다.

「코시킨」은 蘇聯革命 50週年記念論文에서 初期社會主義 建設過程에서는 生産增大가 勞動力의 增加 卽 外延的 要素에 依해 達成되었으나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近代의 技術이 整備됨에 따라 勞動生産性의 向上이 重要하다고 認定하고 있다. 왜냐하면 蘇聯의 勞動生産性 向上은 72年中 工業部門이 5.2% 建設部門 5.4% 鐵道輸送 3.8%로 낮은 狀態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農産物凶作이 日氣不順 이라는 自然條件에도 影響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農業機械化가 効率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人爲的 欠陥 때문이기도 하다. 肥料 農藥의 供給이 充分치 못하고 作業의 機械化率도 耕作, 播種, 施肥, 收穫等은 81-100%의 高度性을 보이고 있는데 比하여 一貫作業에 依한 穀物調整, 荷役, 乾草圧搾等은 約 12-20%로 낮으며 畜産機械도 近代化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같은 經濟狀態를 克服하기 爲하여 蘇聯은 約 50億弗 以上을 美國에 起債하고 美·日과 提携 「시베리아」 開發을 서두르면서 對內的으로는 目標達成督勵體制로 부터 利潤制度로 移行하고 計劃目標을 期限前에 達成한 企業에는 賃金支給等 共產主義 無償勞動으로 부터 物的 剝削의 方向으로 轉換하고 있다. 따라서 農業分野에 있어서도 集團農場에서 일하면서 어느정도의 個人農地所有를 認定해 줌으로써 農民의 耕作意慾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1) 蘇聯의 農業經營體制

蘇聯의 農業經營體制는 主로 「協同農場」(KOLHOZ) 및 「國

當農場」(SOVKHOZ)과 「個人農」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1920年代末의 1次5個年計劃은 農業經營의 集團化目標을 20%로 設定하였으나 結局 61%가 集團化 되었고 商品穀物에 있어서 集團化部門은 約 84%의 市場占有率을 차지 하기에 이르렀다.

2次 및 3次5個年計劃期間中에 農業의 社會主義化가 거의 完成되었다는 點에 留意할 必要가 있는데 農業의 集團化率이 1932年度의 61.5%에서 1937년에 93%로 上昇하였고 耕地面積의 集團化率도 77%에서 99.1%로 上昇했으며 1940年の 農家の 集團化率은 96.9% 耕地面積은 99.9%에 達함으로써 社會主義化를 이루었다. 할수 있다. (表4-9)

(表4-9) 蘇聯의 農業集團化 過程 및 形態

年 度	集團比率	耕作面積 集團化比率	소호즈 (SOVKHOZ)	코르호즈 (KOLHOZ)	個人農
1次5個年計劃目標 (1928-33)	20 (%)	(%)	(%)	(%)	(%)
1次5個年計劃実績 (192年)	61.5 "	77.7 "			
1937年	93 "	99.1 "			
1940年	96.9 "	99.9 "			
1960年 耕作地 構成			42.7	56.4	1.4

한편 「코르호즈」와 「소호즈」의 区分은 지난 1960年度에 「코르호즈」가 56.4%, 「소호즈」가 42.2% 個人農이 1.4%이던 것이 近来에 와서는 食肉을 爲始한 畜産獎勵策으로 因한 「소호즈」의 차중으로 그比重이 「코르호즈」보다 增大하고 있다.

(2) 主要農産物 生産実績

蘇聯의 農業生産은 1950年 以来 1965年 사이에 70%의 増加를 이루고 있으나 同期間中 農業의 産出量이 一律적으로 增大한 것은 아니었고 增大額의 約3分の 2는 「스타린」死後 約5年間 1953 - 58年間に 이루어 졌다. (表4 - 10)

(表4 - 10) 農業의 純生産性 指數(1950=100)

年 度	總 計	農 作 物
1950	100	100
1951	94	91
1952	104	102
1954	109	99
1955	126	118
1957	141	126
1959	149	122
1960	150	124
1961	163	135
1962	161	129
1963	153	118
1964	170	157
1965	171	141

資料 : Douglas B. Diamond, 「Output, Input and productivity Trend in Russian Agricultur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66

그以後의 發展은 微微하여 蘇聯支配層의 만족을 出만한 現象은 되지 못하고 特히 1965年度의 1人當 產出量은 1958年度에 比하여 오히려 低下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結局 蘇聯은 食糧需要에 供給이 미치지 못하여 「캐나다」 濠州로 부터 18億弗에 相當하는 食糧輸入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난 60年代에 있어 化學肥料의 供給增大와 農業의 投資는 60年度에 比하여 65年度에는 75%나 增大시켰고 運輸施設 및 農業의 機械化를 계속 추구해 왔으나 農業의 生産性增加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70年度의 最高豊作으로 因하여 穀物生産은 約 1億8千6百萬屯에 達하였으나 72年度에는 穀物の 總生産이 1億6千8百萬屯에 不過했고, 75年度의 目標를 2億屯으로 策定하고 있으나 現在의 추세로서는 予測하기 힘든 展望이라 아니 할수 없다.

왜냐하면 農業發展에 치중한 지난 7個年計劃에 있어서도 1958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불래 70% 增大計劃에 比하여 実績은 겨우 14%에 그치고 말았고 特히 그中에서도 農作物의 生産增大는 7%에 그치고 말았다. (表4 - 11)

7個年 經濟計劃期間中 農業開發의 이와같은 失敗는 1人當 農業生産性의 低下가 두드러진 現象이라 할수 있다.

(表4-11) 蘇聯의 7個年計劃期間 農業生産의 目標 및 実績

	單位	1958年 実績	1965年 計劃	1964年 実績	1965年 実績
農業總生産	1958=100	100	170	113	114
農作物	"	100		119	107
畜産物	"	100		106	123
1人当農業總生産	"	100	156	102	102
" 農作物 "	"	100		108	96
畜産物生産	"	100		96	110
穀物生産(公表)	100万吨	134.7	153-172	152.1	120.5
原綿生産	"	4.4	5.7-6.1	5.3	5.7
亜麻纖維	1000吨	438	580	346	443
野菜	100万吨	14.9	30-32	19.5	17.0
果物	"	6.6	13.9	9.5	-
食肉	"	7.7	16.0	8.3	9.9
牛乳	"	58.7	100-105	63.3	72.4
계란	10億個	23.0	37.0	26.7	29.0
羊毛	1,000吨	322	548	341	356

資料: George Gatts: [Soviet Agriculture and 7 year plan]
New Direction in the Soviet Economy, [Studies Prepared for the Subcommittee on Foreign Economic Policies]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66.

(3) 農業生産性的 沈滯 및 農業政策의 改善

1950년부터 65년까지의 農業生産 增加는 約 70%에 達하고 있다. 特히 이 期間에 있어 農業의 沈滯는 蘇聯當局이 農業分野를 輕視함으로써 야기된 現象은 아니었고 農業部門의 年間 投入量을 基準으로 하여 볼때 單位生産物當 總資本增加率은 50年代와 比較하여 볼때 60年代에 와서 顯著한 增加를 이룩하고 있다. (表4-12)

이러한 現象은 特히 58년부터 61년까지의 期間 동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60年代 中半期에 와서도 계속 上昇하고 있음은 매우 主要한 事實이다. 그러므로 蘇聯에 있어서 農業部門의

(表4-12) 農業에 있어 資本增加率
(單位: 10億루블 1955年基準)

年 度	資本產出增加 (1)	總 投 資	資本產出物當 總資本增加率
1955 - 58 年	8.82	14.53	1.65
1956 - 58 年	3.06	10.01	3.27
1957 - 62 年	6.08	31.84	5.24
1958 - 61 年	1.54	18.45	11.98
1961 - 64 年	3.96	22.04	5.56
1955/59 年平均 - 1960/64 年平均	5.06	30.84	6.06

註: (1) 生産物은 穀物, 綿花, 煙草, 馬鈴薯, 野菜, 亞麻纖維, 肉, 牛乳等 12個品目

資料: New Direction in the Soviet Economy [Studies Prepared for the Subcommittee on Foreign Economic policies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 C., 1966

生産性を 増大시키기 爲하여서는 무엇 보다도 ① 広範圍한 分野에 걸쳐 生産技術의 改善과 새로운 知識의 應用이 必要로 되고 있으며 ② 勞動力의 教育水準과 技術水準의 向上 ③ 管理職員의 訓練과 熟練의 進歩, ④ 生産管理 및 補償制度의 改善 ⑤ 個人農場 規模의 擴大 및 農業機械修理施設에 投資하여 規模의 適正化를 이루는 일 이 時急하다 할수 있다.

要는 集團農場에 從事하면서도 어느정도의 農地個人所有制를 擴大 함으로써 農民의 耕作意慾을 増大시켜야만 生産性の 向上이 이루어 지리라 보기 때문에 蘇聯의 經濟體制가 部分的으로 資本主義方式을 모방한다 해도 根本적으로 共產主義 概念自体가 變化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라. 東·西貿易의 増大와 蘇聯의 對外貿易

1960年代 前半期까지 東·西貿易은 東歐와 西歐間에 主로 原料와 製品의 補完的 交易이라는 制限된 形態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후루시초프」의 失脚以來 蘇聯을 비롯한 東歐共產諸國들은 그들의 廢鎖的인 社會主義統制經濟의 非能率性을 克服하기 爲한 「리베르만」의 「利潤原理」와 「比較生産費」의 原則에 따라 經濟體制의 自由化와 西方世界와의 交易増大를 積極 推進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COMECON」諸國은 1964年初에 「COMECON」銀行 (國際經濟協力銀行)을 創設하여 域內 交易増大와 社會主義 諸國間의 多角的 決裁制度의 確立 및 共通 通貨創出에 努力하였다.

그러나 1960年 - 70年間の 10年間の 「COMECON」 域内貿易의 年平均 増加率은 8.4%를 나타내고 있는데 比하여 蘇聯等 「CO-MECON」 諸國의 西歐諸國과의 交易은 輸出의 年平均 11%, 輸入은 年平均 12%나 增加하여 共產諸國의 自由陣營諸國과의 交易構成比가 1955年度의 26.5%에서 1970年度에는 38.2%로 增加 하였다.

(表 4 - 13)

한편 中·蘇理念紛爭의 激化와 EEC의 抬頭 그리고 極東에서 日本의 經濟力 擴大等에 刺戟받은 蘇聯은 1969年 1月 「COMECON」 創設 20年 行事에서 「COMECON」의 經濟統合論을 提唱하기에 이르렀으며 「COMECON」 域内の 分業體制 確立과 原料增産 및 共同事業에 對한 長期借款供與를 爲해 「國際投資銀行」을 設立하여 蘇聯의 領導下에 共產圈諸國의 團結을 強化시키고 있다.

(表 4 - 13) 東·西貿易의 年度別 增加現況

(單位：10億\$)

區 分	1950	1955	1960	1965	1969	1970
共產圈諸國貿易總額	10.7	19.2	33.8	48.5	65.5	71.7
構 成 比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① COMECON 域内貿易	8.2	15.5	26.6	39.9	54.4	61.2
對自由圈貿易額	4.0	5.1	9.9	13.9	24.0	27.0
構 成 比 (%)	37.4	26.5	29.2	28.7	36.6	98.2

資料：蘇聯，東歐經濟速報，1971，12.25

註：(1) COMECON 域内交易은 中繼·再輸出包含

(1) 蘇聯의 貿易政策과 國際收支 現況

蘇聯에 있어서는 國際貿易이 國家管理에 依한 「計劃貿易」으로써 實施되고 있다. 따라서 對外貿易은 어디까지나 國內經濟의 從屬된 形態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必要한 物資를 一定한 輸入計劃에 따라 輸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輸出은 이같은 輸入計劃을 達成하기 爲해 國內需要와의 均衡을 고려하여 輸出計劃을 세움으로써 貿易이 이루어 진다.

이러한 現象은 2次大戰 以前 特히 「스타린」의 「一國家社會主義」思想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2次世界大戰以後 東·西貿易의 擴大와 더불어 漸次 퇴색해 가고 있다.

특히 8次 5個年計劃(1966-70)의 實施에 있어서 蘇聯貿易의 黑字가 增大해 가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이같은 現象은 一般的으로 蘇聯當局의 貿易政策의 轉換을 反映하는 것이며 輸出擴大의 積極的 努力에 基因하는 것이다. (表 4 - 14)

1971年度 蘇聯貿易의 總額은 約 235億 「루블」로써 輸出 124億 「루블」과 輸入 111億 「루블」로 構成된다.

8次 5個年 計劃의 貿易總額은 約 913億 「루블」로써 5個年 前에 比해서 約 272億 「루블」(42.5%)이 增加 하였다.

(表4-14)

蘇聯的貿易收支現況

(單位：100萬盧布)

年 度	輸 出	輸 入	貿 易 收 支 差
1938	229.8	245.3	-15.5
1940	239.7	245.5	-5.8
1945	301.8	259.7	42.1
1950	1,615.2	1,310.3	304.9
1955	3,084.0	2,754.5	329.5
1960	5,007.3	5,065.6	58.3
1965	7,357.2	7,252.5	104.7
1966	7,957.2	7,121.6	835.6
1967	8,684.0	7,682.6	1,001.4
1968	9,570.9	8,469.0	1,101.9
1969	10,489.7	9,294.1	1,195.6
1970	11,520.1	10,561.1	959.0
1971	12,420.0	11,160.0	1,260.0

資料：蘇聯貿易統計年鑑

(2) 蘇聯의 輸出入 貿易構造

2次大戦以後 蘇聯의 貿易은 輸出에 있어서는 機械設備, 燃料 電力, 鉍物, 金屬 및 金屬製品, 케블電線等이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纖維原料 및 同製品 食料品 및 原料, 消費用工業製品 等の 輸出占 有率은 低下됨으로써 質的인 高度化를 達成해 가고 있다. 輸入品 目으로서는 主로 機械設備가 큰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1970年 度에 있어 消費用工業製品 化學品, 肥料, 고무의 輸入도 增大해 가 고 있는 反面에 纖維原料라든가 食料品等の 輸入比率은 減少해 가 고 있다. 以上과 같은 商品構成의 變化는 蘇聯經濟의 戰後發展動 向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인데 機械設備의 輸出面의 比重增大는 「COMECON」 圈內에서의 生産協力の 擴大와 開發途上諸國의 援助 增大에 基因하는 것이며 燃料, 電力의 輸出增加는 國內 石油資源 等の 開發에 基因하는 것이다. 纖維原料 및 同半製品, 食料品 및 原料 및 消費用 工業製品의 輸出比率의 低下는 國內需要의 增加에 依한 輸出余力의 減少도 反映하는 것이다. (表 4 - 15)

(表 4 - 15)

蘇聯의 輸出入 構造

(單位：%)

	輸 出		輸 入	
	1950	1970	1950	1970
機 械 設 備	11.8	21.5	21.5	35.1
燃 料 . 電 力	3.9	15.6	11.8	2.1
鉍 物 . 金 屬 製 品	11.3	19.8	15.0	10.5
化 學 品 , 肥 料 , 工 具	4.3	4.2	6.9	5.6
木 材 . 紙 張	3.1	6.5	3.8	2.2
織 維 原 料	11.2	3.4	7.7	4.8
食 料 品 同 半 製 品	20.6	8.4	17.7	15.0
消 費 用 工 業 製 品	4.9	2.7	7.4	18.3
計	71.1	82.1	91.6	93.5
其 他	28.9	17.9	8.4	6.5
合 計	100.0	100.0	100.0	100.0

資料：蘇聯貿易統計年鑑

(3) 蘇聯의 地域別 貿易推移

社會主義諸國과 蘇聯貿易의 最近推移를 보면 蘇聯의 主要貿易 對象國으로서 東歐 6個國과의 貿易額은 50年 - 70年間에 約7.2 倍나 增加를 하였다. 商品構成은 蘇聯으로 부터의 輸出은 機械 設備 約 22% 鐵鋼, 石油 및 同製品, 穀物 纖維原料等이 큰 比重

을 차지하고 있으며 東歐 6 個國과 蘇聯貿易의 基本的 性格은 原料
材 燃料 및 穀物과 같은 基礎物資를 提供하고 機械設備나 消費
物資로써의 完製品을 輸入하는 것이다. (表 4 - 16)

그러나 戰後 蘇聯貿易에 가장 큰 變化는 東·西貿易의 擴大와
더불어 對西方諸國과의 交易의 增大이고 特히 對美貿易의 增加現象
이다. (表 4 - 17)

1970 年度의 西方諸國中 蘇聯과 比較的 協力關係가 긴밀한 伊太利
仏蘭西 和蘭 등의 輸出入 共히 若干 減少하였으나 西獨과 貿易은
顯著히 增加하였으며 英國·日本과의 貿易도 계속 增加하고 있다.

(表 4 - 16)

蘇聯의 對共產國 貿易推移

(單位：1千루블)

	輸 出			輸 入		
	1965	1968	1970	1965	1968	1970
COMECON 諸國合計	4,210.2	5,247.0	6,260.9	4,261.1	5,127.1	6,023.0
불가리아	529.6	854.4	844.0	544.0	802.2	972.2
항가리	491.3	607.9	758.3	463.0	602.1	721.6
東 獨	226.7	1,355.1	1,738.1	1,156.2	1,444.8	1,556.9
蒙 古	114.1	174.5	178.3	55.7	47.8	52.6
폴 렌 드	654.0	945.1	1,214.9	702.6	928.4	1,134.9
루마니아	362.5	375.0	444.6	396.9	410.8	474.0
체 코	832.0	934.3	1,082.7	931.9	891.0	1,110.5
其 他 共 產 諸 國	789.2	1,173.7	1,269.4	787.8	603.3	856.4
共 產 諸 國 合 計	5,000.7	6,420.7	7,530.3	5,048.9	5,730.4	6,879.4

(表 4 - 17)

蘇聯의 对自由圏 貿易 推移

(单位: 100 万루블)

国 別	輸 出		輸 入	
	1965	1970	1965	1970
오스트리아	42.5	66.7	59.8	88.2
벨기에	45.8	74.0	28.2	75.0
英 国	262.0	418.2	136.8	223.2
그리스	33.0	31.7	25.6	31.4
덴마크	25.0	20.8	27.9	23.0
西베르린	2.9	7.8	2.8	17.0
아일랜드	-	2.0	-	0.1
아이스랜드	9.1	8.3	6.4	9.1
스페인	18.2	7.5	2.0	5.7
이태리	133.2	190.4	91.5	281.4
和 蘭	57.9	151.2	27.0	71.7
노르웨이	18.4	24.3	17.2	22.5
西 独	128.7	223.4	119.8	320.6

国 別	輸 出		輸 入	
	1965	1970	1965	1970
仏 蘭 西	99.5	126.0	102.9	286.8
핀 랜 드	190.9	258.3	217.4	272.4
스 위 스	15.9	24.6	12.2	70.5
스 웨 덴	50.9	150.4	47.5	129.5
日 本	166.5	341.4	159.6	310.9
캐 나 다	12.2	7.5	227.8	117.8
美 国	31.0	57.8	58.2	103.1
오스트레일리아	1.4	1.5	90.7	60.3
뉴우지랜드	0.4	0.7	7.0	18.9
22 個 国 合 計	1,345.4	2,149.5	1,468.3	2,539.1
其 他	0.7	4.4	1.2	1.0
總 計	1,346.1	2,153.9	1,496.5	2,540.1

이들 西方工業國으로 부터 蘇聯의 輸入은 주로 「캐나다」로 부터의 小麥輸入이 크며 日本과의 貿易도 伸張하고 있다. '69年度의 商品構造를 본다면 西方諸國으로 蘇聯輸出의 第1位를 占하는 것은 石油 및 同製品이고 다음이 木材 및 「셀루로즈」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表4-18)

그러나 國別로 본다면 英國이나 日本에의 蘇聯輸出에서는 木材

(表4-18) 主要西方諸國과의 交易商品構成現況 (1969)

	輸出 (蘇聯)		輸入 (蘇聯)	
	金額	比率 (%)	金額	比率 (%)
機 械 設 備	47.8	2.6	926.6	47.1
石 炭	98.2	5.2		
石 油 및 同 製 品	395.8	21.2		
穀 物	60.3	3.2		
鐵 鋼	88.4	4.7	134.3	6.8
木材 「셀루로즈」	306.1	16.3		
織 維 原 料	76.7	4.1		
小 麥			25.3	1.3
化 學 品			131.3	6.7
織 維 系			87.0	4.4
織 物			51.1	2.6
縫 製 品			105.0	5.3
計	1,073.3	57.3	1,460.6	74.2
其 他	99.3	12.7	507.6	25.8
總 計	1,872.6	100.0	1,968.2	100.0

「셀루로즈」가 1위를 西独 伊太利等에는 石油 및 同製品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西方諸国으로 부터 蘇聯의 輸入은 47.1%가 機械設備이다. 西方諸国에 蘇聯의 輸入依存도가 큰 機械設備은 化学工業部門과 木材 製紙設備·船舶 및 船舶用設備 纖維 및 輕工業設備 等이다.

最近 蘇聯의 東西貿易 擴大에서 가장 注目을 끄는 現象은 美·蘇貿易 特히 蘇聯의 對美輸入이 增大하고 있는 事實인데 이것은 蘇聯國內에서의 自動車工場建設에 關聯하여 美国이 行한 對蘇自動車工業 設備輸出의 增加에 起因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蘇聯國內에서 供給事情이 惡化되어 있는 「알미늄」과 牛皮의 對美購買가 增加한 데에 基因한다.

1971年度에 들어서서 對美輸出은 더욱 擴大되었다. 兩國의 71年度 貿易高는 約 1億 5千萬 「루블」에 達하여 美国이 蘇聯에 輸出한 1億 「루블」은 主로 農産物과 化工藥品이었고 蘇聯이 美国에 輸出한 5千萬 「루블」은 主로 鉍物原鉍의 大部分이었다. 兩國은 相互間의 經濟 및 通商에 關한 未解決 問題를 타개하기 爲하여 지난 數年間 凍結되어 온 蘇聯의 對美戰時負債償還에 關한 協約에 合意한 바 있으며 蘇聯船舶의 美国內 寄港權에 關한 協商을 벌이고 있고 向後 5年間 貿易量의 約 10倍의 增大를 計劃하고 있다.

第 5 章 蘇聯經濟의 問題點 및 展望

가. 蘇聯經濟의 問題點

蘇聯의 經濟體制가 數年內에 根本的으로 變質되어 從來의 中央集權의 計劃體制에서 地方分權의이며 利潤動機方式에 依存하는 體制로 變質될 것이 予想된다.

蘇聯의 經濟體制는 個人의 創意와 이로 因한 經濟의 革新보다도 國家의 計劃과 指導를 信賴하는 社會主義體制이며 지난 半世紀 동안 그같은 信賴下에서 比較的 높은 成長率과 工業化로 實踐되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蘇聯經濟의 成長과 工業의 構造的 심화는 國家의 指導만으로는 發展을 더 以上 持續시킬 수 없는 問題에 直面하여 60年代부터 停滯局面에 접어 들었다.

社會主義計劃經濟와 官僚支配下의 經營은 이른 바 「노르마」라고 하는 生産割當制를 達成하는 것으로 滿足하는 惰性을 派生시켰으며 때문에 生産이 需要와 消費大衆의 厚生과는 無關하게 되는 矛盾을 惹起시켜 왔다. 即, 「노르마」를 重量으로 割當하면 製品의 使用價值를 고려함이 없이 製品의 數量으로 채우려 함으로써 質을 蔑外視하여 왔다.

따라서 生産된 製品은 滯貨로 쌓일뿐 消費生活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경우가 許多하다는 矛盾에 直面하게 되었고 이로 因한 浪費와 非能率은 비단 消費財工業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었다.

生産財工業에 있어서도 새로운 技術開發이 不振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聯関工業에 對한 有機的 調和같은 것은 期待하기 어렵게 되어 新規投資의 進度로 低下시키는 矛盾을 派生시켰다.

이러한 一聯의 矛盾은 中央集權的 計劃方式이 多數의 創意보다 少數 官僚의 計劃을 信賴한다는 制度自體의 欠陥에서 派生되는 것임으로 制度自體를 再檢討하지 않고서는 解決될 수 없는 問題이다.

때문에 1950年代 後半 「후르시초프」의 登場과 더불어 「리베르만」의 利潤動機導入論이 提起되었던 것이며 이는 1965年 「코쉬긴」首相에 依하여 一部 消費財工業에 適用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源泉的으로 社會主義理論의 正統性에 어긋나는 利潤制度의 導入은 그 後 심각한 理論分爭을 야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必要性을 認定하면 서도 共產主義基本理念上의 制約으로 因하여 그 導入이 沮害되었던 利潤動機方式을 蘇聯이 이제 수궁하지 않으면 안될 根本的인 原因은 ① 蘇聯經濟의 成長率이 크게 鈍化되고 있으며 ② 新規投資完成率이 計劃에 크게 未達될 뿐 아니라 技術의 開發速度가 不振하여 그 突破口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③ 연이은 凶作으로 食糧危機에 直面하고 있다는 事實等인데 이 같은 全般的인 停滯를 脫皮하기 爲하여 이제 大衆의인 創意의 發揮에 期待할 수 밖에 없다는 判斷이 理念보다 重視된 所以라 하겠다.

그러나 生産性を 만회하기 爲한 65年度부터의 企業의 利潤追求方式은 期待했던 代로의 生産性を 提高하는데 短期的 效果를 多少 發揮하기도 하였으나 極度로 相反되는 政策의 混用은 漸次 그 기

行性を 드러내어 지난 1969年度の蘇聯經濟는 '65年以後 最惡의 1年을 記録하게 되었고 그 結果 計劃經濟에 對한 根本的인 危機를 蘇聯支配層에 안겨 주었다.

왜냐하면 經濟에 「利潤制導入」으로 發展을 圖謀하는 것과는 달리 바로 그 中核인 「價格」과 「賃金」을 계속 嚴格한 統制下에 둠으로써 「市場要因」을 배제한데 起因하는 것이다. 蘇聯은 지난 '66年度에 約 7百個의 「示範企業」을 選定하여 利潤制方式을 試驗하였는데 이들 示範企業體의 利潤이 年間 25%인데 比하여 餘타의 企業은 平均 10% 内外였고 農業分野에 있어서도 家族 單位의 營農이 集團農場方式 보다 約 6倍의 生産性を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改革過程에서 蘇聯이 과감한 價格體系의 變化를 試圖했다면 經濟政策은 成功裡에 進行되었을 지도 모른다.

即, 國家의 嚴格한 計劃下에서 非正常的으로 이루어져 온 配給組織은 彈力性있는 企業運營에 對應한 組織으로서 바꾸어 져야 하는데 이러한 事實은 곧 共產主義經濟自體의 崩壞를 뜻하는 만큼 移行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스스로의 試行錯誤를 內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利潤制度를 基礎로 한 蘇聯의 「코쉬긴」經濟 改革은 지난 '69년도末까지 全體工業의 生産單位 約 4分の3인 3万6千個의 工場을 새로운 形態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들 業體는 總工業生産에서 83.6% 利潤總額의 0.1%以上을 차지하여 多少의

효과를 나타 내기도 하였으나 '69年度 蘇聯經濟의 各種 成長率의 指標는 70年度로 끝날 5個年計劃期間中 目標未達이라는 最惡의 狀態를 나타내고 있으며 特히 1人當 實質所得의 增加率은 5.5%에 未達하는 5%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事實이 바로 「브레즈네프」가 指摘한 計劃上의 過誤 卽, 「經濟計劃」과 實際의 「經濟循環」이 調和를 이루지 못한 데에 原因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經濟가 沈滯에서 脫皮하려면 다음 몇가지 난관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이미 失敗한 經濟改革을 再改革하는데 따른 不可避한 經濟的 마찰이며,

둘째로는 이제껏 蘇聯經濟發展에 制動要因을 形成한 國防費의 增加를 어떻게 삭감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더욱이 「브레즈네프」가 軍裝備現代化를 當面課題로 내세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軍事費는 今後에도 계속 커다란 經濟的 負擔要因이 될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나. 利潤制度와 새로운 價格体系의 定立

(1) 價格策定の 理論的 論争

前述한 바와 같이 1965年度에 단행한 「코쉬긴」經濟改革의 成敗如否는 또한 새로히 나타날 新制度의 本質을 左右하는 決定要因은 「價格体系」의 形成에 集約되고 있다.

따라서 蘇聯에 있어서는 社会主义經濟制度下에서의 價格形成의 合理的 規範을 어떻게 設定하느냐 하는 問題를 論争의 對象으로 하고 있다. 理論經濟學者나 政策立案者의 大部分은 價格은 實質生産 「코스트」를 反映하는 것이어야 하며 需要變動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傳統的 「맑스」主義立場을 固執하여 왔다.

이러한 一派가 関心을 集中한 것은 價格算定機構, 企業의 利潤性을 애워싼 諸問題, 價格의 技術革新意慾에 미치는 刺戟, 販売稅 및 價格의 包含되는 「마진」을 통해 이루어 지는 國民所得再分配의 問題等이다.

反面에 少数派에 屬하는 「네즈치노프」, 「칸트로비치」等 數理經濟學者들은 西方側의 變動價格論을 漸次 받아 드리려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價格이란 相對的 不足狀態를 나타내는 指標의 役割을 하여 本質적으로 財貨의 需給關係를 反映하는 指標로 生覺하고 있다.

그러나 工業의 價格體系를 어떻게 改革할 것인가에 對해 蘇聯의 經濟學者들은 ① 傳統主義派 ② 剩餘生産物加算派 ③ 理想 「코스트」派로 大別된다.

먼저 傳統主義派는 工業價格構成의 傳統的 方式에 基本路線을 支持하고 있다.

價格을 經濟管理의 手段으로 利用할 경우에는 企業體의 效率的인 活動을 推進하고 特定한 事物의 需要供給要因을 確認하고 特定商品의 消費를 促進 또는 減退시키기 爲해 大部分의 경우 價值로부터

의 遊離가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傳統主義派는 또한 生産財價格 全體의 水準을 大幅的으로 引上하여 剩餘生産物을 擴大해야 한다고 生覺하지는 않으나 代身 그들은 欠損이나 過剩利潤을 排除하고 代替品間의 適正한 價格關係를 確立하고 新型機械의 導入을 促進하는 等等을 爲해 生産財價格構造의 部分的 調整을 主張하고 있다.

다음 두 번째로 剩餘生産物 加算派는 生産「코스트」($C + V$)에 一定比率의 剩餘生産物 (m) 加算을 첨가 價格을 價值(即 $C + V + m$ 의 合計)에 同等하게 함으로써 價值基準의 價格決定을 提唱하고 있다. 이들은 消費財의 都壳價格의 全盤的 水準을 變更함이 없이 生産財의 都壳價格水準을 引上토록 提唱한다.

세 번째로 理想「코스트」派는 價格은 相對的 欠乏을 反映해야 하며 資本料, 地代를 包含한 效率價格을 間接的으로 提案하고 있다.

이같은 價格은 理論的으로는 投入과 產出 其他 數學的 計劃技術에 依한 「最適計劃」의 編成에서 얻어지는 「Shadow Price」와 같게 된다. 故로 最適計劃은 政治指導者가 設定하는 一聯의 最終 產出目標를 可能한 限 效率的으로 達成하게 될 것이다.

理想「코스트」派는 計劃과 「Shadow Price」等 複雜한 經濟關係에 對해 詳細한 情報의 欠如 또한 그것이 있다 해도 情報을 處理하는데 必要한 資料處理 計算設備의 欠如 等으로 現在로는 編成할 수 없음을 認定한다. 그러나 不完全하기는 하나 最適計劃의 理想的 價格特徵의 一部를 導入하여 現行價格體系의 改善을 考

慮하고 있다.

(2) 「코쉬긴」의 價格改革 內容

以上과 같은 價格体系의 論爭 가운데 「코쉬긴」의 價格改革 內容은 다음과 같다. 지난 1965年 「코쉬긴」首相 演說에서 밝혀진 價格改革의 主要內容을 보면,

- ① 總產出量보다 売上과 利潤性을 企業成績의 主要指針으로 設定하고
- ② 各生産 單位는 產出과 投入의 構成을 決定함에 있어 前보다 多少 큰 自由를 얻는다.
- ③ 資本의 節約을 爲하여 企業體는 固定資本과 流動資本에 對해 利子를 支拂할 것이며 그 利潤性은 「코스트」보다도 資本과의 關聯에 있어 算定되고 新規投資는 大部分이 財政給付가 아니고 銀行融資에 依해 調達되어야 한다.
- ④ 生産單位는 그 利潤에서 投資 및 勞動者와 經營者 雙方의 「보너스」支拂을 爲해 보다 큰 部分을 留保한다.
- ⑤ 價格은 品質, 耐久性, 信賴性 및 消費者가 얻는 經濟效果를 考慮해야 한다.
- ⑥ 價格은 社會的 必要勞動 「코스트」를 最大限 反映하고 生産과 配給 「코스트」를 커버하고 正常操業하는 各企業體의 利潤爭取를 確保할 수 있어야 한다 等으로 되어 있다.

(3) 農産物 및 小売價格改革案

農産物 調達價格에 對한 主要批判은 相異한 製品의 價格과 「코스트」와의 關係 價格의 地域隔差에 對한 欠陷과, 價格이 合理的인 專門化를 促進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點等이다.

첫째 批判은 調達價格의 水準과 體系는 多같이 生産「코스트」를 적절히 考慮함이 없이 決定되어 왔다는 點이다. 그 結果 共營農場의 產出을 增大시키기 爲한 刺戟이 없었으며 共營農場의 農夫들은 各者의 個人農地에 勞力을 集中시키는 結果를 招來했다는 點이다.

둘째의 批判은 個個作物의 價格은 有利한 自然條件에서 發生하는 地代의 差異를 좁히기 爲해 地域的 격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價格의 差異는 相異한 地域에 있어서의 「코스트」差異만큼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에 對한 改革案은 ① 價格을 平均生産費 (Average Cost) 보다 限界生産費 (Marginal Cost)에 依해 決定하고 ② 地域의 境界를 設定하고 相異한 地代를 받기 爲하여 價格差 以外의 手段을 使用하며 ③ 收穫의 變動에 따라 價格을 變更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小売價格策定에 있어서는 이제껏 價格은 需要와 市場을 充分히 檢討하지 않고 決定되어 왔으며 이에 對한 改革案으로서 ① 需要를 면밀히 檢討하고 價格의 彈力性을 增大하며 ② 價格의 決定을 더욱 非集中化 한다고 되어 있다.

다. 價格體制의 展望

이제껏 蘇聯의 制度改革과 그 成敗의 核을 이루고 있는 價格體系에 關하여 檢討하였는데 蘇聯經濟가 生産과 資源配分을 指導함

에 있어 中央의 指令보다 市場性과 財貨의 循環에 보다 큰 役割을 賦與하는 方向으로 徐徐히 移行해감에 따라 蘇聯의 經濟學者 및 政策樹立家, 政治指導者들은 漸次 價格機能에 큰 注意를 集中하게 되었다.

1956年부터 始作된 價格에 對한 批判的 論議는 蘇聯經濟에 있어 價格制度의 많은 欠陷을 暴露했으며 多樣한 改革案이 續出했는데 小規模의 技術的 修正案으로부터 基本的 性格의 抜本的 變革까지를 包含하고 있다.

蘇聯共産黨과 政府의 最高幹部들이 現在 이같은 價格問題에 큰 関心을 갖고 있음은 事實이지만 中央計劃當局은 財貨의 不足을 反映하여 可用資源을 効果的으로 配分할 수 있는 價格을 確保하기 爲해 價格制度의 大幅的 改革에는 매우 주저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가지 理由는 經濟計劃立案 및 行政官僚들이 이같은 改革에 抵抗하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의 政治指導者와 計劃立案者들은 全体經濟에 對한 管理權을 消費者의 至上權에 넘겨주는 것을 꺼려하며 따라서 彈力的 價格에 產出量을 決定시키고 資源을 配分하고, 所得을 分配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럼으로 「코쉬긴」의 新經濟模型에서는 生産單位業績指表, 決定權의 分散等은 分散했음에도 不拘하고 價格決定은 如前히 集中化되어 改革이 없으며 今後에도 주로 前述한 「맑스」主義理論에 基礎

한 傳統的 類型에 따라 價格體系가 形成될 것이라 予想된다.

그 結果 蘇聯의 計劃立案者들은 蘇聯經濟에 있어 800万 乃至 9百万種類의 價格을 規制한다는 不可能한 作業에 계속 直面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蘇聯의 苦惱와 「딜레마」는 資本主義體制의 全面的 導入이 資源配分の 効率化 나아가서 經濟成長을 促進시키는 決定的 要因임을 시인하면서도 또한 그들이 신봉하는 「맑스」理論과 共產主義經濟體制가 이미 時代의 變化에 그 適應性을 상실해 간다는 事實을 認識하고 있으나 現存하는 그들의 社會體制가 嚴存하고 있는 限 急進的 改革은 요원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